

Ⅲ 안도, 대부도





Ⅲ. 안도, 대부도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가. 사회·지리적 배경

1) 주요 항과의 거리

안도의 주요 항으로 안도항과 서고지항이 있다. 안도항에서 여수여객선터미널까지는 직선거리로 28.4km 떨어져 있고, 인근의 금오도 우학항까지는 3.67km, 연도의 역포항까지는 4.1

km 떨어져 있다.
서고지항에서 안도항까지는 직선거리로 1.48km 떨어져 있고, 연도의 역포항까지는 2.8km, 연도항까지는 5.43km 떨어져 있다.



안도항



안도 선착장



서고지대합실



대부도선착장

2) 인구현황과 토지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안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215세대 321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이중 남자가 176명 여자가 145명이다. 남면에서는 금오도, 연도에 이어 3번째로 인구가 많은 섬이다. 안도의 총면적은 2.92km²이고¹⁾, 해안선 길이는 11.6km이다. 대부도는 주민등록상 11세대 16명이 살고 있으며, 이중 남자와 여자가 각각 8명이다. 대부도의 면적은 0.176km²이고, 해안선의 길이는 약 2.2km이다. 토지현황은 밭 111.5ha, 논 0.2ha, 임야 293.9ha, 기타 9.4ha로써 임야와 밭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현황(명)

구분	세대수	인구수	남	여
안도	215	321	176	145
대부도	11	16	8	8



안도마을 전경



대부도

1) About전남의섬(<https://islands.jeonnam.go.kr/>)에는 2.66km²로 기록되어 있다.

3) 공공기관

(1) 안도중계민원처리소

1967년 7월 3일, 안도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안도리 888-1번지에 목조가와 25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안도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76년 안도리 888번지에 벽돌슬라브 17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하였다가 1993년 마을주민들이 대지를 제공하여 현 위치인 안도리 890번지에 벽돌슬라브 36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하였다. 2007년 5월 31일 조직개편으로 안도중계민원처리소로 개칭되었다.

-
- 1967. 07. 03. 안도출장소 개설(안도리 888-1번지, 목조가와 25평)
 - 1976. 출장소 신축 이전(안도리 888번지, 벽돌슬라브 17평)
 - 1993. 신축 이전(안도리 890번지, 벽돌슬라브 36평)
 - 2007. 05. 31. 안도중계민원처리소로 격하



안도중계민원처리소



안도중계민원처리소(2008년)

(2) 여수경찰서 안도분소

일제강점기인 1918년 일본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남면에서 제일 먼저 안도에 주재소가 설치되었다. 이후 1932년 여수경찰서 안도지서가 설치되었고, 1950년 안도리 863번지에 17평 규모의 기와건물로 청사를 신축하고 이전하였다. 1974년 1월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자 1978년 23평 규모로 신축하였다. 1995년 1월 안도파출소로 개칭되었다가 2000년 6월 안도분소로 격하되었으며, 2017년 8월 폐소하였다,

- 1918. 경찰 주재소 설치
- 1932. 여수경찰서 안도지서 설치
- 1950. 신청사 신축(안도리 863번지에 토담기와 17평 건물) 및 부속건물 신축
- 1955. 07. 21. 안도지서 연도행정연락소 설치
- 1974. 01. 18. 지서 목조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전체 소실²⁾
- 1978. 안도지서 신청사 준공(대지 227평, 건평 23평)
- 1995. 01. 27. 여수경찰서 안도지서를 여수경찰서 안도파출소로 개칭
- 2000. 06. 01. 여수경찰서 여남파출소 안도분소로 격하
- 2017. 08. 안도분소 폐소³⁾



여수경찰서 안도분소(2008년)

(3) 부도경찰출장소

부도에는 1976년 1월 안도리 1195-2번지에 부도경찰행정연락소가 설치되었다. 이후 1977년 8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이전하였고, 1979년 2월에는 부도경찰출장소로 개칭하였다가 1992년 폐소하였다.

- 1976. 01. 21. 안도리 1195-2번지에 부도경찰행정연락소 설치
- 1977. 벽돌슬레이트 8평 건물 신축
- 1979. 02. 13. 부도경찰출장소로 개칭
- 1992. 06. 11. 부도경찰출장소 폐소

(4) 해양경찰서 서고지출장소

2001년 12월 여수해양경찰서 서고지신고소가 개소하였으며, 다음해인 2002년 7월 서고지출장소로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안섬지』에는 1974년 화재로 청사를 소실하여 1978년에 신청사를 준공했다고 하고, 『남면지』에는 1970년 화재로 소실하여 1974년 5월 30일에 23평 규모의 신청사를 준공했다고 기록되었다. 여기서는 『안섬지』의 기록에 따른다.
- 3) 『남면지』에는 2012년 5월 31일 안도분소가 폐쇄되었다고 했으나, 여수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2017년 8월에 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1. 09. 01. 여수경찰서로부터 서고지대행신고소 인수
- 2001. 12. 11. 여수해양경찰서 서고지신고소 개소
- 2002. 07. 08. 여수해양경찰서 서고지출장소 신설



해양경찰서 서고지출장소



해양경찰서 서고지출장소(2008년)

(5) 남면우체국 안도출장소

1937년 금오도 심장리 126번지에 심장우편소가 설치되었으나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1939년 안도리 859번지로 우편소를 이설하여 우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49년 여남우체국이 설치되자 안도우편소는 폐지되었다. 1952년 안도우체국이 같은 위치에 설치되었고, 이후 1983년 현위치인 안도리 858번지에 61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2016년 10월 남면우체국 안도출장소로 격하되었다.

- 1939. 10. 11. 여천군 남면 안도리 859 청사 신축 이설
- 1949. 08. 15. 안도우편소 폐지, 우학리에 이설 (여남우체국 개국)
- 1952. 01. 01. 안도리 859번지에 안도우체국 개설
- 1983. 철근콘크리트 61평 건물 신축 (안도리 858번지)
- 2016. 10. 01. 여수남면우체국 안도출장소 전환



안도우체국(2008년)

4) 교육기관

(1) 여안초등학교



여안초교



여안초교(2008년)

1922년 11월 안도사립보통학교로 인가되었다가 1942년 3월 여안공립보통학교로 승격되었다. 1949년 4월 여안국민학교로 개칭하였고, 1968년 7월 부도분교장을 개교하였다. 1984년 병설유치원을 개원했으며, 1985년 여안국민학교여남중학교 안도분교로 격하하였다. 1994년 2월 부도분교가 폐교되었고, 1996년 3월 여안초등학교로 개칭되었다가 2022년 2월 폐교하였다.

-
- 1922. 11. 03. 안도사립보통학교 인가
 - 1942. 03. 31. 여안공립보통학교 인가(승격)
 - 1942. 05. 11. 여안공립보통학교 6년제 개교(2학급)
 - 1949. 04. 01. 여안국민학교로 개칭
 - 1968. 07. 04. 여안국민학교 부도분교장 개교(서고지 1188-1)
 - 1984. 03. 12. 여안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 1994. 02. 28. 여안국민학교 부도분교 폐교
 - 1996. 03. 01. 여안초등학교로 개칭
 - 2022. 02. 28. 폐교

- **교목** : 향나무(희망, 의지, 높은 기개)
- **교화** : 동백(강인, 순결, 아름다움)
- **교색** : 파랑(진리, 젊음, 신비)
- **교가** : 이승남 작사, 백영훈 작곡

상산에 청룡 줄기 뒤에 싸들고
남해의 푸른물결 반짝이는 곳
수려한 자연 속에 아담히 남아
영원무궁 빛나는 우리 여안교

기러기 굳은 의지 역역이 새겨
안도의 문화역사 빛낼 우리들
지성껏 배우고 힘을 합하여
영원무궁 빛나는 우리 여안교

(2) 여안초등학교 부도분교장

대부도에는 부도분교장이 개설되었다. 1968년 7월 단급 분실이 인가되어 여안국민학교 부도분교장이 안도리 1188-1번지에 개교하였다. 1994년 학생수 감소로 폐교하였다.

-
- 1968. 07. 04. 단급 분실 인가
 - 1968. 07. 06. 여안국민학교 부도분교장 개교
(안도리 부도 1188-1번지)
 - 1994. 03. 01. 여안국민학교 부도분교장 폐교



부도분교

(3) 안도고등공민학교

1950년 9월 25일, 안도리 889번지에 학생 30명으로 안도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였다. 설립자는 황치문, 김영길 씨였으며, 이후 안도리 1002-1, 1002-2번지에 벽돌슬라브 45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하였다. 1982년 2월 폐교하였다.

(4) 여남중학교 안도분교장

1981년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1984년 여남중학교 안도분교장으로 설립 인가되었으며, 1985년 여안국민학교 2층에 1학급 신설하여 여안국민학교여남중학교안도분교장을 개교하였다. 학생 수 감소로 2018년 3월 1일 휴교하였다가 2020년 3월 폐교하여 여남중고학교로 통폐합되었다.

-
- 1984. 12. 24. 여남중학교 안도분교장 설립인가
 - 1985. 04. 25. 여안국민학교여남중학교안도분교장 개교(안도리 999번지)
 - 2018. 03. 01. 여안초등학교여남중학교안도분교장 휴교
 - 2020. 03. 01. 폐교



여남중 안도분교



여남중 안도분교(2008년)

5) 의료기관

(1) 안도보건진료소

1981년 안도리 888번지에 벽돌슬라브 25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안도보건진료소가 개소하였다. 1984년 안도보건진료소로 격하되었고 1998년 3월 현 위치인 안도리 975번지에 벽돌슬라브 3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청하였다. 2021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현대식으로 개조하였다.

- 1981. 안도리 888번지에 벽돌슬라브 25평 건물 신축, 안도보건진료소 개소
- 1984. 안도보건진료소로 격하
- 1998. 03. 벽돌슬라브 3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청
- 2021. 리모델링 공사



안도보건진료소



안도보건진료소 간판

6) 기타

(1) 여수농협 안도지소

1989년 3월 남면농협 안도지소로 연쇄점을 포함하여 안도리 889번지에 개점하였다. 1991년 5월 판매점을 신축하였고, 1997년에는 서고지에 마트를 개점하였다. 1998년 여수농협과 합병되면서 여수농협 안도지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0년 이후 폐소하였다.



안도지소 서고지마트

-
- 1989. 03. 14. 남면농협 안도지소 개점(연쇄점 포함)
 - 1991. 05. 안도지소 판매점 신축
 - 1997. 12. 안도지소 서고지마트 개점
 - 1998. 02. 10. 여수농협 안도지소로 명칭 변경
 - 2010. 폐소

(2) 여수시수산업협동조합 남면사업소

1977년 3월 안도리 산 372번지에 벽돌슬레이트 45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여수수산업협동조합 남면사업소를 개설하여 수산물 위판 및 유류사업을 실시하여 어업인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 이후 수산자원의 고갈로 연근해어업이 사양길로 들어섬에 따라 적자 누적으로 2007년 12월 31일자로 폐쇄하였다.



여수수협 남면유류분급소

-
- 1977. 03. 01. 여수시수산업협동조합 남면사업소 개설(안도리 산 372번지, 벽돌슬레이트 45평 건물 신축)
 - 2007. 12. 31. 남면사업소 폐쇄

나. 지형과 환경

1) 지형

(1) 안도

최고봉인 중앙의 상산(207m)을 비롯하여 섬 전체가 산지를 이루나,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다.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알칼리장석 화강암과 안산암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안도의 주도인 동쪽 섬과 서쪽 섬이 서고지라 부르는 좁은 사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사주의 북쪽은 안도만(安島灣), 남쪽은 이야만(以也灣)에 해당한다. 또한, 북동쪽에 백금만(白金灣)이 있고, 곳곳에 돌출부가 발달하여 해안선의 드러나름이 복잡하다. 만안에 펼쳐진 일부 사빈해안을 제외하면 암석해안이 대부분이며, 특히 동쪽 해안은 해식애가 발달했다. 기후는 대체로 온화하고 비가 많이 내린다.⁴⁾

(2) 대부도

대부도는 최고 지점은 93m 구릉으로 대체로 섬 동쪽은 급경사이고 서쪽은 완경사이다. 해안선이 단조로운 편이며, 남서 해안 쪽에 해식애가 발달해 있다.

(3) 이야포 해변

남쪽을 따라 자갈 해안이 발달하였다. 역질해안이라고도 하며, 사빈에 비해 투수성이 강하므로 구배는 비교적 급하며 비치커스프(beach cusp) 등이 해변에 형성하기 쉽고 전체적으로 뚜렷한 기복이 나타난다. 태풍이 지나간 직후에는 평활한 단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야포

4) 디지털여수문화대전

(4) 백금만 해변

섬의 북동쪽을 따라 만입부에 사빈해안의 특성이 나타난다.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며, 고화되지 않은 제3기층이나 제4기층이 노출된 해안에 잘 발달한다. 사빈은 장시간에 걸친 침식 현상으로 사빈이 육지 쪽으로 후퇴하기도 한다. 최근 백금만 사빈은 십여 년 전과 비교했을 때 모래량이 상당히 유실되어 사빈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백금만



서고지 해안

(5) 암석해안

안도는 동고지 가는 길을 따라 암석해안이 잘 발달하였다. 이는 해안 침식지형의 산물로 해식애와 파식대가 뚜렷이 발달하였다.



동고지 해안

2) 지질

안도는 섬 중앙부와 서부 일대는 중생대 백악기 섬록화강암(kdgr)이 분포하며, 그 외 지역은 중생대 백악기 유천층군인 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kiv)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도는 중생대 백악기 중성화산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서쪽은 암석 해안이 발달해 있다.



안도와 대부도 지질도⁵⁾

3) 토양

안도에는 섬 서부와 중앙부에 화강암 풍화토가 분포하고, 그 외 지역은 안산암질 화산각력암이 풍화된 토양이 분포한다.

대부도의 경우 신생대 제4기 과거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만들어진 적색토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4) 기후

인근의 연도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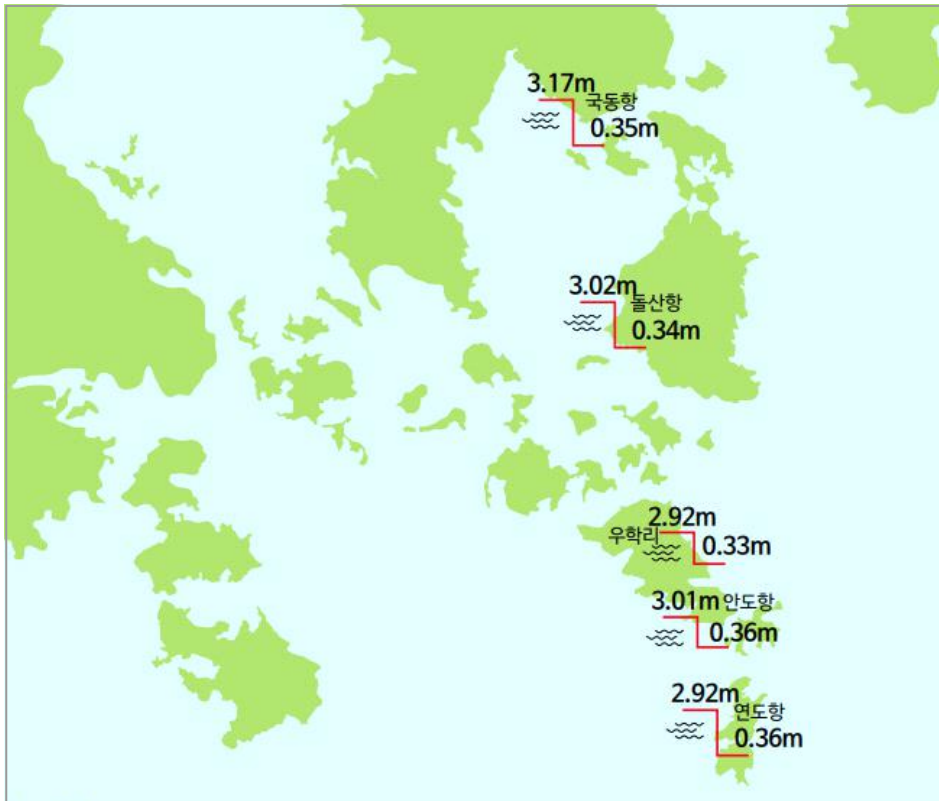
5)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정보시스템

5) 주변해역조류

안도수도 일대는 유속(流速)이 최고 1.0Kn 정도로 매우 느릴 뿐만 아니라, 평균 수심은 18m 내외를 유지하며 최대 수심은 약 28m 정도이다. 폭은 넓은 곳에서 약 750m 정도이며, 이 해역의 남쪽에 접한 안도에는 천혜의 만이 발달해 있어 유사시 선박들이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는 곳이다.

(단위:m)

구간	현황		표준항인 여수항과 조시차(분)
	고조	저조	
국동항	3.17	0.35	+13분
돌산항	3.02	0.34	+14분
우학리	2.92	0.33	+2분
안도항	3.01	0.36	0분 (표준항:안도항)
여수연도항	2.92	0.36	+8분



안도와 연도 주변 조류

(출처: http://xn-pr3bz5p.com/ebook/catImage4/3/3_seaway.pdf)

6) 주변환경

연근해에서는 장어·삼치·잡어·갈치·오징어 등이 잡히며, 대규모의 전복 양식과 자연산 김·미역·톳 등이 채취된다. 안도마을을 비롯한 해안 일대에 마을이 분포하며, 북쪽 만안은 선박 대피소로 이용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하며, 백금만에 발달한 사빈은 해수욕장으로 이용된다.⁶⁾

7) 주변도서

주변의 큰 섬으로는 금오도가 연도교로 이어져 있으며, 남쪽에는 연도, 서쪽으로는 대부도, 소부도, 북쪽으로는 초삼도, 중삼도, 외삼도 등이 있다. 부속무인도서로 소부도, 노적섬이 있다.



노적섬



소부도



좌부터 초삼도 중삼도 외삼도



대부도

6) 디지털여수문화대전

다. 식생과 생태⁷⁾

1) 안도의 생태자원

안도와 대부도에서 자생하는 상록활엽수종은 구실잣밤나무, 모밀잣밤나무, 녹나무, 센달나무, 새덕이, 육박나무 등이 출현하고 있다. 보존이 필요한 지역 특징종으로는 석고, 초종용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때 안도에서 특산품으로 섬가시오가피와 황금을 재배하였으나, 지금은 재배하지 않고 있으며, 방풍을 많이 키우고 있다.



섬가시오가피(2008년)



황금

2) 안도의 식물 및 식생

안도는 상록활엽수림대에 속하며, 지금까지 조사된 관속식물은 남면에서 총 818 종류이며, 자원식물로는 약용식물이 66.7%, 식용이 54.5%, 관상용이 56.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안도의 식생은 소나무와 구실잣밤나무가 주종을 이루며 동백나무, 후박나무, 소사나무, 오리나무, 대나무, 신대나무를 비롯해 부분적으로 모밀잣밤나무, 까마귀쪽나무, 육박나무 등이 출현하고 있으며, 휴경지에는 개망초, 망초군락, 환삼덩굴, 억새, 수크령군락, 염습지에는 갈대, 천일사초군락 등이 출현하였다.

안도의 당숲에는 우리 고유 수종인 동백이 몇백 년을 지켜온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서 있다. 많은 자료에 전통 동백은 꽃잎이 8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백은 가장 아름다울 때 꽃봉오리 통으로 전체가 툭 떨어진다고 한다.

7) 여수·여천 유류오염 사고지역의 환경 현황조사 최종보고서(한국해양연구소, 1997)

앞뒤 말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동백 중에서 우리 전통 수종은 통꽃이다. 단지 앞에서 본 모습이 8장 정도로 나뉘어져 보인다. 외래종이나 개량종 동백의 경우 같은 의미로 툇 떨어진다고 해도 분명 날꽃이다. 사이사이에는 아릅드리 후박나무와 구실잣밤나무가 동백과 같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주변의 횡간도와 두라도 등도 거의 비슷한 수종들이 비슷한 형태로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당숲이 근린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수양복숭아를 테두리로 둘러 심어서 만개했을 때는 주변까지도 환한 정도로 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당숲으로 오르는 길에는 고목을 타고 오르는 계요등이 상당하다. 계요등은 하얀 꽃이 앙증맞게 필 때도 아릅답지만 가을의 노란 낙엽도 일품이다. 겨울 동안 내내 노란 열매를 가득 달고 추위를 견디는 모습 또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동백꽃



계요등

3) 육상동물

안도에 분포하는 포유류, 조류 및 양서 파충류는 금오도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더지, 너구리, 수달, 고양이, 대륙사슴, 고라니, 염소, 집쥐, 생쥐, 등줄쥐, 관박쥐, 청솔모 등의 포유류와 붉은해오라기, 새홀리기, 수리부엉이, 팔색조, 삼광조, 흑로,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검은등뻐꾸기, 뻐꾸기, 병어리뻐꾸기, 두견, 속독새, 물총새, 할미새사촌, 노랑때까치, 검은딱새, 피꼬리, 팽이갈매기, 참새, 붉은머리오목눈이, 제비, 직박구리 등의 조류가 알려져 있다. 양서파충류로는 도롱뇽, 청개구리, 참개구리, 도마뱀, 줄장지뱀, 유혈목이, 무자치, 실뱀, 능구렁이, 대륙유혈목이, 쇠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 등이다. 안도 주변 바다에 서식하는 좁수수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 해당한다.

4) 해양생물

조간대 암반 해안무척추동물은 총 114종이 출현하였다.

이 가운데 편형동물에서는 와충류, 자포동물에서는 해변말미잘류, 유형동물에서는 끈벌레류, 태형동물에서는 이끼벌레류, 성구동물에서는 별벌레류, 환형동물에서는 홍점갯지렁이, 보석갯지렁이류, 버들갯지렁이류, 실타래갯지렁이류, 부채발갯지렁이류, 고리털갯지렁이, 송곳갯지렁이류, 백금갯지렁이류, 참갯지렁이류, 비늘갯지렁이류, 열굴갯지렁이류, 염주발갯지렁이류, 유령갯지렁이류, 연체동물에서 털군부, 털군부류, 흰삿갓조개류, 군소, 돌조개류, 이매패류, 얼룩고둥류, 세뿔고둥, 청자고둥류, 세로줄조개사돈, 바위굴, 침배고둥, 배고둥류, 구슬띠물레고둥, 복족류1, 줄군부류, 군부, 애기돌맛조개, 총알고둥, 보리무늬, 털담치, 종밧류, 홍합류, 홍합, 주홍방석고둥, 방석고둥, 절지동물에서는 참옆새우류, 큰앞손옆새우류, 따개비류, 삼각따개비, 꼬마은행게, 바다대벌레류, 조무래기따개비, 모래무지벌레류, 갯주걱벌레류, 육질꼬리옆새우류, 가시흙뿔잔벌레, 넓은마디육질꼬리옆새우붙이, 새우붙이, 옆새우류, 극동육질꼬리옆새우, 극동육질꼬리옆새우류, 풀게, 세혹잔벌레, 긴채찍해조숨이옆새우, 해조숨이옆새우류, 등각류, 가시꼬리육질꼬리옆새우붙이, 멜리타옆새우류, 두드러기어리게, 바위게, 긴눈집게류, 꼬리다리옆새우류1, 부채게류1, 알통게붙이, 주걱턱옆새우류, 긴배옆새우류1, 거북손 등 극피동물에서는 아무르불가사리, 별불가사리, 성게류, 네모애기불가사리, 뱀이거미불가사리류, 침거미불가사리류, 뿔거미불가사리류, 왜곱슬거미불가사리, 거미불가사리류, 돌기해삼, 척삭동물에서는 미더덕이 출현하였다.



해양생물



해양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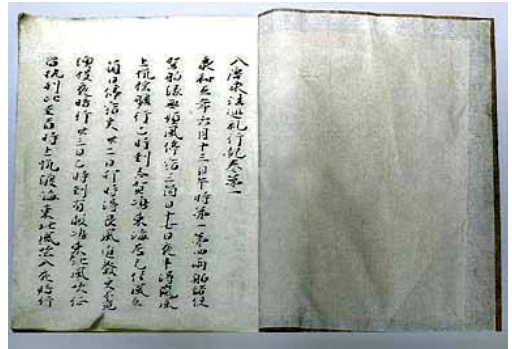
2. 역사와 문화

가. 연혁

안도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조개더미 유적이 3곳에 분포하고 있다. 유적에서는 다양한 문양이 새겨진 질그릇 편들과 돌을 다듬어 만든 돌도끼, 대팻날, 숫돌 등 여러 가지 석기들이 발견되었다. 안도에서 발견된 흑요석과 돌톱은 일본 큐슈 지역과의 교류에서 반입된 것이다. 2구의 인골이 신전장(伸展葬: 시체를 반듯하게 죽 펴서 묻는 장례)으로 매장되어 있었다. 특히 서쪽 인골에는 팔목과 가슴 부위에 조가비 팔찌가 출토되어 매장 당시 패용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통일신라시대에 일본 승려 엔닌(圓仁, 794~864)이 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의 847년 9월 8일의 기록 중에 안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 여수 지역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여겨진다.

안도는 1396년(태조 5) 순천부에 예속되었다. 1896년 돌산군이 설치되면서 금오면에 편입되었으며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안호(雁號)에서 안도(安島)로 개칭되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돌산군과 여수군에 통합되었다. 이때 안도리와 서고지마을과 부도마을을 통합하여 여수군 금오면 안도리에 편입되었다. 1998년 3여통합으로 여수시 남면 안도리로 개편된 후 현재에 이르렀다.



입당구법순례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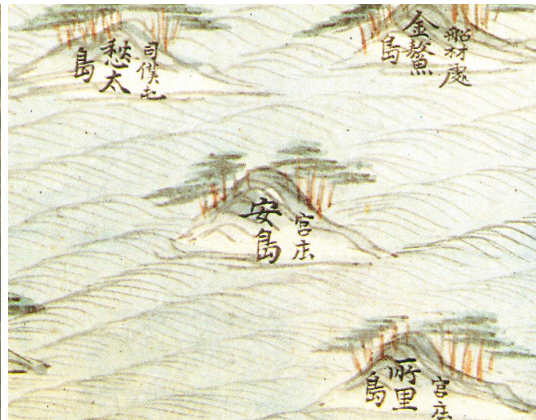
엔닌

안도의 유래는 섬 가운데 ‘두명안’이라 부르는 천연호수가 형성되어 있어 천혜의 선박대피소로 사용되었다. 입구는 좁고 들어가면 S자형 호수와 같이 형성된 항구가 폭풍우에도 선박이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는 곳이라 하며 이곳을 ‘두명안’이라 하였으며, 안이 있는 섬이라 하여 안도라 하였는데 한자로 ‘안도(安島)’라 하였다. 이설로 여러 개의 만과 곶이 있어서 마치 섬 모양이 기러기 같다 하여 그 음을 따서 ‘안도(雁島)’라 하였다는 유래도 전해온다.

198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전라남도 어촌 체험형 관광마을로 지정되었다. 2010년 2월 18일 금오도와 안도간의 연도교가 개통되었다. 2012년 안전행정부 ‘찾아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었으며, 2014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선정 명품마을로 ‘동고지마을’이 선정되었다.



순천부지도



호남도서 중 순천지도

안도주민들은 두루마리에 신석기 시대부터 섬의 역사를 연표를 만들어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다. 지금도 마을회관에 액자로 만들어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 다음은 안도마을 역사연표이다.

시기	내용
신석기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도리 1314번지 일대 안도리 790-2번지 일대 신석기 패총 유구 용기대문토기, 선문토기, 석기류, 골각기류, 흑요석과 돌톱 (일본 큐슈 지역산) 출토
삼국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38년 백제 성왕 16년 돌산현 관할
통일신라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라말 일본인 승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장보고 휘하 김진의 배를 타고 당나라의 적산포를 떠나 하루 낮 하루 밤에 한반도 서안의 ‘고이도’에 도착하였으며, 다음날 구초도와 안도(雁島)에 도착한 후 신라방으로 갔다고 기록됨. 안도는 신라국의 방마산이었다고 함.
고려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조 23년(940년) 무주 승평군 돌산현 소속
조선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종 13년(1413년) 전라도 순천도호부 돌산만호 관할 성종 10년(1479년) 전라관찰사 아래 전라좌수영 설치, 안도는 전라좌수영의 규찰을 받았으며 안도 상산과 심포 망산에 방답진 봉수 전초기지인 봉수대가 있어 봉수대를 지키던 사람들이 살았다.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 일어남 헌종개수실록권19 헌종 9년(무오년, 1668년) 7월21일 전라좌수사가 당선 한 척이 표류해왔던 사실을 계문하다. “이달 7일에 당선 한 척이 표류하다가 방답지경의 안도 앞 포구에 들어와 정박했는데 배의 제도가 우리나라의 전선과 크기가 같았다. 뱃사람들은 모두 머리가 길고 수염이 있었으며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대략 30~40명쯤 되었는데 나무를 하고 물을 길고는 바로 배를 띄워 떠났다.” 정조 1년(1777년) 안도에는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던 것 같다. * 전라감사 이보행이 순천 안도에 사는 정덕수 등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치계한데 대해 하교하기를 “본도로 하여금 울전을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시기	내용
조선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조 21년(1797년) 순천부 안도에 이양선 표착, 유구인 조사 ◦ 1885년 금오도 봉산 해제 ◦ 1893년 심장리 심포에 귀향살이 왔던 이주회가 일본인을 끌어들여 전라도 앞바다에 일본 어선이 침범한 첫 번째 일이다. 금오도 동쪽 안도를 근거지로 8척의 선단이 우수한 장비를 동원 부근 어장을 황폐화시켰다. ◦ 1896년 돌산군에 예속. 금오도, 안도, 연도가 금오면 개칭
대한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7년 여수군과 돌산군으로 분할함. 돌산군 초대군수 조동훈 안도 순시비 설치
일제강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0년 토지 세부측량 실시, 소리도등대 설치 ◦ 1914년 돌산군과 여수군 통합 여수군에 예속 9개 법정리 형성. 면사무소를 안도에 설치하려 하였으나 지방 유지들이 공출과 자녀 징집, 마을 기부금이 많이 들어갈 것을 우려해 금오도에 설치하고 면정이 이루어졌다. ◦ 1915년 사립 의숙소 설치 ◦ 1917년 금오면을 남면으로 개칭 ◦ 1918년 경찰주재소 설치 ◦ 1918년 3월 23일 안도어업조합 설립(종대 설치) ◦ 1919년 심상소학교 설립, 제당 보수(권선문) ◦ 1921년 김순덕 공덕비 ◦ 1922년 안도 사립보통학교 설립(김인수) ◦ 1923년 금오도에서 배다여 매입(박몽길), 안도 학교조합 설립 ◦ 1925년 이아포 등천소나무 방풍림 조성 ◦ 1925년 태풍 및 해일(을축년 너울(나우리, 나울)) ◦ 1928년 우학리어업조합 설립 ◦ 1930년 여객선 첫 취항(짐부호), 안도리 889번지 동각 개소 ◦ 1931년 안도 소년단 창단(목일선), 여수읍 승격 ◦ 1932년 여수경찰서 안도지서 재설치 ◦ 1937년 심장리 우편소 설립(김도상) ◦ 1938년 여객선 쓰루마루호 취항 ◦ 1939년 심장리 우편소 안도 이설, 사립우편소 설립(김도상)

시기	내용
일제강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0년 안도 전신가설 기성회 발족, 서고지 저빙고 설치 ◦ 1942년 안도사립보통학교 폐교, 여안공립보통학교 개교, 강제징병 실시, 낫그릇 공출 ◦ 1943년 서고지 행정리 분할 ◦ 1945년 신하곡 500여 가마 공출, 안도 의용소방대 창설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5년 8.15 광복 ◦ 1946년 여객선 통도호 취항, 남면지서 설치 ◦ 1947년 안도교회 설립 ◦ 1948년 여순사건 안도에서 11명 사망 ◦ 1949년 여안국민학교로 개칭, 여천군 설치로 여천군에 예속, 농지개혁 공포 ◦ 1950년 안도공민학교 설립(황치문, 김영길), 6.25전쟁 발발, 8.3일 이아포 피난민 수송선 폭격사건 ◦ 1951년 여남고등공민학교 설립 ◦ 1952년 안도 우체국 개국, 초대 면의원 선거 ◦ 1953년 여객선 웅천호 취항 ◦ 1955년 안도지서 연도 경찰행정연락소 설치 ◦ 1956년 초대 면장 선거 ◦ 1958년 안도의용소방대 격납고 설치 ◦ 1959년 사라호태풍으로 이아포 등천 일부 유실, 본동 가옥 침수, 여객선 웅천호 침몰 ◦ 1960년 여객선 조양호 취항 ◦ 1961년 안도, 연도, 심장리, 남면 4개 조합 합병 ◦ 1963년 박정희 정부 수립 ◦ 1964년 여객선 장구호, 창영호 취항 ◦ 1966년 안도우체국 연도분국 개설, 여객선 여일호 취항 ◦ 1967년 남면 안도 출장소 개소, 음달저수지 착공 ◦ 1968년 여안국민학교 부도분교 설립 개교, 동각에 공중목욕탕 설치, 향 토예비군 안도에 제2중대 설치

시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9년 이야포 석축방조제 축성(구름다리), 남면 단위농협 설립 ◦ 1970년 안도-서고지간 제1종 어업권 분할 ◦ 1971년 서고지 제3종 국가어항 지정 ◦ 1973년 안도어업조합 폐지 여천군 어업조합으로 합병, 안도리사무소 이청, 여객선 신앙호 취항 ◦ 1974년 안도지서 화재 ◦ 1975년 여안국민학교 운동장 확장 매립, 자가발전시설(박명수), 배다여 안도어촌계에 이관 ◦ 1976년 남면 안도출장소 신축 이청, 여안국민학교 도서관 신축, 비료창고 건립, 여객선 신흥호 취항 ◦ 1977년 마을안 돌담 벽돌로 교체, 여수수산업협동조합 남면 서고지사업소 신축 개설 ◦ 1978년 안도지서 신청사 준공, 한전 전기 점화 ◦ 1979년 새마을운동으로 동고지 오지암도로 확장, 이야포-상산동 도로개설, 마을상수도 시설 ◦ 1981년 보건지소 신축 개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여객선 경주호 취항 ◦ 1982년 고등공민학교 폐교(417명) 두명안 준설(1차) ◦ 1983년 안도우체국 신축 ◦ 1984년 부잔교설치, 1두명안 준설(2차), 여남중학교 안도병설중학교 설립, 보건진료소로 격하 ◦ 1985년 남면 최초 어촌계나잡업실시, 해수욕장관리실 신축, 자동전화 개통, 한국통신공사 안도지소 설치, 여남중학교 안도 병설 중학교 개교 ◦ 1986년 효부상(김정자, 나삼례), 제1안어호 진수 ◦ 1987년 셀마호 내습, 효자상(최재운) ◦ 1988년 전국한노경기대회 출전 2등, 효자상(김유성) ◦ 1989년 남면 단위 농협 안도지소 신축 개설, 서고지 국가어항 공사 시작, 태풍 주디 내습, 효부상(김념진, 김점례) ◦ 1990년 서고지교회 설립, 두명안 준설(3차) ◦ 1991년 감사상패(부산창성건설)

시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효자 상장(조채수), 여안동문화 발족, 제2안어호 진수, 다이버선 검거 ◦ 1993년 남면안도출장소 신축 이청, 한국전기통신공사 안도지소 신축 이청, 다이버선박 인수 제3안어호 명명 ◦ 1994년 여안국민학교 부도분교 폐교, 안도교회 신축 및 교육관 신축, 마을안 호안공사, 새어민상 수상(박창균), 쾌속선 순풍호 취항 ◦ 1995년 리사무소 신축,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마을 공동어업 호당 130만 원 분배 ◦ 1996년 안섬장학회 설립(정재곤), 여안초등학교로개칭, 본동 경로당 신축 ◦ 1997년 다이버선 총돌사건, 보건진료소 신축, 이청 효자상(김춘곤) 본동 경로당 신축, 재여수 안도향우회로 명칭 변경 ◦ 1998년 3여통합(여수시, 여천시,여천군) 이야포 등천 철거 조림사업, 해수욕장 도로 1차 개설, 두명안준설(4차) ◦ 1999년 두명안 준설(5차), 이야포 경로당 신축, 장학회 마을 이관, 차도선 금호페리호 취항 ◦ 2000년 제1안어호 폐선 ◦ 2001년 효부상(강선아) ◦ 2002년 마을상수도 관로시설, 해양경찰서 서고지 파출소 신설, 전국 자율어촌계 선정, 제5안어호 진수, 해양수산부장관상 수상(손민오) ◦ 2003년 안호정 건립, 서고지 리사무소 신축 ◦ 2004년 해수욕장 도로 완공 ◦ 2005년 해양수산부 바다목장화 사업 유치, 해수욕장 도로변 가로수 식재, 종대 재설치(GS칼텍스) ◦ 2006년 대통령상 수상(황중운), 서고지교회 건축, 안도 심장리간 연도교 착공, 상산봉수대 1차 복원, 상산 등산로 개설, 이야포 태풍 방지 석축, 오지암-상산동간 도로 개설, 음달상수도 관로시설, 일출제 개설(청년회) ◦ 2007년 찜질방 신축 개관, 광주국립박물관 발굴 조사 및 안도패총 6000년 전시회 개최, 안도출장소 중계민원실로 격하, 윗두명안 준설(6차) 및 아랫두명안 물양장 공사, 11.27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여수시), 마을 유급인원 직선제 첫 선거,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선정, 제5안어호 매매, 12.31 여수수협서고지 사업소 폐쇄 ◦ 2008년 섬유물 전시관 개관, 상산동-이야포 도로 확장, 안도리-서고지, 심장리 상수도 시설 착공, 동고지 도로포장 완공,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착공, 안섬사랑 소식지 발행(분기)

역대 마을 이장, 어촌계장

년도	이장		어촌계장	
	대수	이름	대수	이름
1916	초대	윤명순		
1921	2대	김도상		
1923	3대	김태현		
1923	4대	윤명순		
1924	5대	황갑조		
1925	6대	황암회		
1927	7대	박몽길		
1929	8대	황유환		
1946	9대	김병혁		
1947	10대	추규홍		
1948	11대	김형용		
1949	12대	박남식		
1950	13대	박용근		
1951	14대	장동수		
1952	15대	김익수		
1955	16대	박용근		
1957	17대	김연조		
1958	18대	윤학현		
1959	19대	박홍래		
1961	20대	박대진		
1961	21대	최동식		
1963	22대	김연조		
1968	23대	백의장		

년도	이장		어촌계장	
	대수	이름	대수	이름
1970	24대	김소진욱	초대	김창모
1971	25대	김문갑		
1972	26대	박준섭		
1973			2대	정정행
1975	27대	황계호	3대	황만옥
1977	28대	황만옥	4대	윤동균
1980			5대	황계한
1981	29대	김종한		
1982	30대	손민오	6대	황호무
1983	31대	박준열		
1985	32대	황종운		
1986			7대	김기성
1987			8대	황만옥
1989	33대	손민오	9대	박옥철
1991	34대	박창균	10대	손민오
1993	35대	정성순		
1994			11대	박창균
1995			12대	황종운
1996	36대	정정행		
1997	37대	정재곤		
1999			13대	손민오
2001	38대	김연수		
2003	39대	김성기	14대	황종운
2005	40대	정재곤		
2007			15대	유훈수

나. 마을유래

1) 안도마을

를 모시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씨 일가는 경상남도 남해에 살면서 고기잡이하던 중에 풍랑을 만나 안도에 표류하게 되었다가 섬의 지형이 사람이 살기 좋아 가족들을 데려와 정착하였다고 하며, 이후 사람들이 들어와 마을을 형성하였다. 1860년 경신대화재로 300여 가구 가운데 한 가구를 제외한 모든 집들이 불타버리자 삶이 막막했던 주민 중 일부는 봉산으로 지정되어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었던 금오도 등지로 이주하기도 했다.



안도마을 전경

2) 서고지(西古地)마을

막막해지자 안도의 서쪽 끝으로 나와 집을 짓고 정착했다고 전한다. 그 후 김해김씨, 여양진씨 등이 이주해 와 마을이 형성되었다. 한때 80~90호의 가구가 살았을 정도로 큰 마을이었으나 현재는 크게 감소하였다.

진주하씨 현식이 경남 진주에서 하동으로 옮겨 살다가 다시 안도에 건너와 정착하게 되었는데 1860년 경신대화재 당시 집이 불타버려 살길이



서고지마을 전경

3) 동고지(東古地)마을

확한 입도조와 마을 형성 시기는 알 수 없다. 한때 갈치잡이와 문어잡이가 성행하여 50~60여 호의 가구가 살았고, 주막이 2~3군데 있을 정도로 번성하였으나 지금은 10여 호만 남아 있다. 2014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선정 명품마을로 선정되었다.

안도마을에서 동쪽으로 1.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에 있다하여 동고지라고 불렀다. 정



동고지마을 전경

4) 이야포마을

성행했는데 등천에 막을 치고 밤에 불을 켜 들망으로 멸치를 잡던 것이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8월 3일 피난민을 실은 화물선이 이야포 해변에 정박하던 중 미군의 기총소사로 150여 명이 희생된 이야포 미군폭격사건의 현장이기도 하다.

언제부터 사람이 들어와 살았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이야포는 예로부터 멸치잡이가



이야포마을 전경

5) 대부도마을

진다. 대부도라는 명칭은 섬의 모양이 마치 가마솥[釜]을 얹어 높은 것 같이 생겼다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 취락은 안도와 접한 동쪽 해안에 발달해 있다.

1440년 경 김해김씨가 처음 입도하였다고 전해



대부도마을 전경

전력은 공급되나 상수도는 공급되지 않아 식수는 우물을 사용하고 있다. 교통은 여수항에서 정기 여객선이 운항되었으나 2018년 남면 안도에서 대부도까지 인도 교가 놓이면서 2022년부터 정기 여객선은 운항하지 않고 있다.

6) 상산동마을

여수시 남면 안도리의 가장 높은 산인 상산봉의 동쪽 해변에 있는 마을로 상산으로 가는 길목에 상산을 등지고 있다하여 상산동마을이라 했다.

밭농사를 위주로 1970년대 초 가장 많은 주민이 살았을 시기에 17호의 집이 있었다. 상산동은 겨울철에도 따뜻하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 물이 좋았던 마을로 알려졌다. 상산동 주민들은 안도와 까치섬으로 알려진 작도와의 사이에서 문어단지과 고기잡이, 해산물 채취를 하면서 풍족하게 살았으며, 안도에서도 잘 사는 마을이었다.

1959년 사라호태풍이 상산동마을을 강타하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6척의 배가 모두 파손되어 밭농사만으로는 살길이 막막하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은 하나 둘씩 안도의 안도마을이나 이야포, 여수 등지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1995년 전부 이주하면서 마을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다.

7) 오지암마을

오지암마을은 오지바구라고 불렸으며 안도마을 동쪽 안도해수욕장 남쪽 해변 구릉에 위치했던 마을이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알 수 없고

1970년대 당시 9가구의 주민들이 살던 작은 마을이었다. 오지암마을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번데기라 부르던 5~6호가 있던 마을이 있었고, 구신(귀신)이 난 동네라고 해서 불렀다는 구신난동이 오지암마을 북쪽에 자리하고 있어 세 마을을 합쳐 오지암마을이라 불렀다.

8) 기타

이 외에도 지금은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생선골(안도리 92번지)에는 2호가 거주하였으나 1965년경 이주하였다. 골짜기에 가재가

많아 가재금으로 불리기도 했던 가막골(안도리 351번지)에는 6가구가 살았으나 1970년경 이주하여 돌담만 남아 있다.

작은 이야포(안도리 1644번지 일대)에도 3가구가 살았으나 1970년경 이주하였고, 대박우, 뒤뜰, 상산, 윗 서고지 등지에도 사람이 거주하였으나 지금은 살지 않는다.

다. 고고·역사유적과 유물

1) 안도조개더미

안도조개더미는 1992년 국립광주박물관이 실시한 남해도서 지표조사에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사에서 남해안 신석기문화의 특징인 압날문토기, 용기문토기 등과 원거리 교역관계를 보여주는 흑요석 등 특징적인 유물들이 채집되어 유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조사 당시 이 유적은 이미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이 이루어지면서 패각층의 상당 부분이 훼손된 상태로서, 다량의 유물들이 드러나 있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훼손 방지를 위해 유적의 보존·보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안도패총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계획은 2002년 여수시가 금오도와 안도를 연결하는 연도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금오도와 안도를 연결하는 공사 구간 내에 조개더미가 입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적의 훼손방지를 위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광주박물관은 여수시의 의뢰를 받아 지난 1월 2일부터 약 90일간의 긴급구제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결과 패총은 현재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남동-북서향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패총의 중심부를 포함한 약 1,400㎡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안도조개더미 유적(발굴당시)

조사 결과 패각퇴적층의 분포 범위가 남서~북동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은 당시의 해수면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석기시대의 구 지표면에서 여러 기의 불 땀 자리와 수혈이 확인되었다. 불 땀 자리는 어로가 주생업 경제였던 당시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공동으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안도조개더미 팔찌



안도조개더미 귀걸이



안도조개더미 유골

문화적 의례 행위를 행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매각퇴적층의 최상층인 암갈색계 혼토패각층에서는 무덤과 집석수혈 유구가 확인되었다. 조개더미에 무덤이 조성된 사례는 통영 연대도, 옥지도 상노대도 산등, 부산 범방조개더미 등이 있다. 이들 무덤은 대개 얇은 구멍이를 파고 시신을 넣은 뒤 흙이나 돌로 덮은 토장묘이며, 연대도조개더미의 예와 같이 여러 기가 조성된 사례도 보고되어 있다. 안도조개더미에서 확인된 무덤도 2기가 연접하여 조성되었으며, 그중 1호 무덤에서는 조가비 장신구가 손목 부위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하나의 토광에 2구의 인골이 매장된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어 당시 매장 풍습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기대문토기와 용기선문토기, 이형패제품, 석시, 결상이식, 조가비 팔찌 등이 출토되었다. 이들 유물은 층서별로 정리가 이루어지면 남해안 지역 집단 간 또는 일본과의 교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특히 용기문토기는 한반도 남해안과 동해안, 일본의 큐슈지역과 산음, 산양 지역 등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특징적인 토기로 알려져 있다. 안도조개더미에서 출토된 용기문토기는 패각조흔문이 시문되어 있는 점, 종 방향의 용기대에 각목(刻目)이 된 점, 횡 방향의 용기선에 각목이 시문된 점 등에서 볼 때 조문토기 도도로끼식과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토기들은 조문토기 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같이 안도조개더미에서 조문토기가 출토된 점은 일본 구주 지역과 남해안 지역간의

문화적 상관성을 비교, 검토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흑요석이 출토되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 출토된 압인문토기 중에는 아직 국내외에서 출토된 예가 없는 문양이 시문된 것이 있어 전남 지역 신석기문화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이 토기의 문양은 삼각 집선문과 모티브가 유사하나 압인문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결상이식 1점은 도석제로 추정하고 있다. 결상이식을 만든 소재의 산지는 대체로 해남 옥매산과 성산 광산, 완도 노화도 등지가 거론되고 있다. 결상이식은 한반도를 비롯하여 일본 열도 전역과 중국 동북부 및 연해주 지역 등 주로 해안 및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성 문암리에서 석제품 1쌍이 무덤 주인공의 머리부분에서 출토된 바 있고, 울산 신암리에서는 흙으로 만든 파편 1점이 출토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청도 사촌리와 부산 동삼동 등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는 아직 출토된 예가 없었는데, 이번 안도조개더미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형성 연대는 정리가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파악되겠지만,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유적의 형성 시점은 패각층의 최하층에서 두립문토기와 용기문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신석기시대 전기로 판단된다. 유적의 하한 연대는 압인·압날문토기에 이어 세선 태선침선문 토기류들이 출토되고 있으므로 신석기 중기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적의 중심연대는 패각 퇴적층에서 용기문토기, 압인 압날문토기, 무문양토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신석기 전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안도요망(雁島瞭望)⁸⁾

남면 안도리 산 265번지 일원 해발 206.9m 북위 34° 29' 07.51" 동경 127° 48' 44.15"의 상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금오열도의 끝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면소재지인 금오도, 서쪽으로 고흥반도의 나로도가 있으며, 남쪽은 연도가 위치하고 동쪽은 망망대해다. 산정에서는 일대가 한 눈으로 조망할 수 있는 위치이며, 맑은 날에는 멀리 삼산면 거문도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안도요망은 '조선후기의 지방도'의 「순천부지도」와 「순천방답진지도」에 나타나는데, 「순천부지도」에는 해중의 안도(雁島) 산사면에 황색 '철(凸)자' 형태로 작게 표현 후 '요망(瞭望)'이라 표기하였다. 「순천방답진지도」에는 해중의 안도(雁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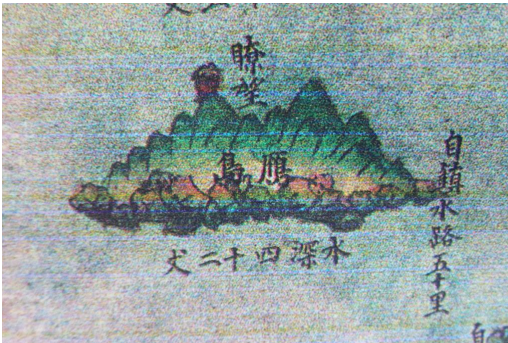
8)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비지정 문화유산 기초학술조사』, 2019.

산정부에 가옥 형태로 표현 후 ‘요망(瞭望)’이라 표기하였다.

요망은 2003년도에 여수시에서 일부 정비하다 중단한 상태이다. 정비 전 유적의 상태는 석축 원형 형태로서 높이 2.0m, 하부지름 10m, 상부지름 6m 정도이며, 남동쪽에 축조된 방호벽을 이용하여 오른편으로 오르는 나선형의 오름길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연대의 하부에 연조의 구조가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정비하다 중단된 연대는 당초의 요망대를 그대로 두고 돌레를 큰 석재로 쌓은 후 내부를 흙으로 덮은 2단 구조 형태이다. 1단은 높이 2.2m, 하부지름 10.0m이며, 2단은 높이 0.9m, 상부 지름 7.0m로 상부는 당초 요망대의 상부를 그대로 드러내 놓은 상태이다. 요망 아래 20m 지점에 집터 흔적이 남아 있다.

주변 대응가능한 봉수, 요망, 망대 등의 직선거리는 망산망대 2.9km, 연도요망 7.0km, 향일암요망 11.9km이다.

안도마을 뒤쪽의 농로를 이용하여 오르는 산길은 잡목과 수풀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하며, 섬 남쪽의 이야포마을에서 임도를 따라가다 소이야골에서 민묘 옆으로 난 셋길 등산로를 이용하면 된다.



연대 전경



정비 전 연대 전경(2002년)



정비된 연대 1단 상부



정비된 연대 동쪽면

3) 기념비

(1) 해상순찰 기념비(海上巡察記念碑)

마을 입구 부둣가에 장방형 사암 중앙에 크게 “趙東勳”(조동훈)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우측으로는 “南湖捍衛 八域要衝”(남호한위 팔역요충)이라고 새겨져 있다. 비석의 크기는 높이가 90cm, 폭 40cm이다. 당시 초대 돌산군수였던 조동훈의 해상순찰기념비이며, 임기로 보아 1897년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



해상순찰기념비

다. 조동훈 군수가 이곳을 순시한 후 S자형 지세의 중요성을 감탄하고 남쪽에 있는 호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곳이 조선팔도 중에서 요충지라 하여 해안경비를 다짐하라는 뜻으로 경구비를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번의 매립공사로 인하여 현 위치에 2000년 11월 주민 일동으로 옮겨 내력과 함께 단장하여 세웠다.

(2) 김순점 공덕비



김순점 공덕비(2008년)



김순점 공덕비와 돌다리

마을 안 동서로 내림천 어귀에 정사각형 사암 중앙에 “金海金順店 幼學 劉昌玄”(김해김순점 유학 유창현)이 세로로 새겨져 있고, 좌측으로 “安島民人共同紀念 區長 金道祥”(안도민인공동기념 구장 김도상), 우측으로는 “대정십년(1921년) 7월”

이라고 새겨져 있다. 비석의 크기는 높이 70cm, 넓이 20cm 정사각형이다. 해마다 홍수가 나면 내림천이 범람하여 나무로 만든 다리가 유실되자 김순점이라는 부인이 사비를 들여 상산 해발 170m 중턱 서들밭에서 넓이 130cm, 길이 250cm의 평석을 수십명의 장정을 동원하여 옮겨 돌다리를 놓았으며, 매립으로 인하여 여러 번 옮기는 과정에서 좌우로 많이 소실되었다. 안도 주민들이 그녀의 공덕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비를 세웠다. 배수로 공사로 인하여 현 위치에 옮겨 후세의 본으로 삼기 위해 내력과 함께 주민의 이름으로 2000년 11월 10일 기존의 비 옆에 새로 세웠다.

(3) 안도중학교 개교기념비

비문 (1985년 4월 25일)

남녘바다 백리길 외로운 땅에
 배움터 오를 총생 목메인 소리
 상산봉 굽이 굽이 메아리쳤네
 그 소리 그 메아리 뉘아니 못든것가
 세년이 유수하여 더디나마 이뤘으매
 굳은 뜻 같고 닦아 천만리를 앞서가리

안도중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안도중학교 개교기념비

(4) 유래비

전국 어촌마을 공동체로 선정되어 당산(뒷산)을 공원화하고, 이곳에 유래비를 세웠다.

비문

태초에 기러기 내려앉아
 신비의 섬 이루고
 선사시대 많은 유물 안도의 시작이라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선단, 일본 승려 쉬어가고
 당나라, 신라, 왜의 중간 기착지라
 고려시대 정씨 내외 안착하여
 마을번성 이루시고
 개척신조(開拓信條) 정월 보름 당제 올려
 마을 안태(安泰) 해난(海難) 사고(事故) 무사기원 빌었노라
 상산 봉수대 세워 임진왜란 극복하고
 경신년(1860년) 대화재로
 300여호 전소되어 금오도 등지로 이주하여
 남면 형성의 초석을 다졌노라.
 돌산군(1897년) 설치로
 남호한위(南湖捍衛) 팔역요충(八域要衝)
 경구비 세워 호남방위를 위한
 조선팔도의 요충지로 자리잡고
 경찰주재소, 어업조합 설립으로
 오고가는 무역선이 입출항하였으며
 우편소, 심상소학교 세워 남면 발전의 선구지라
 여순사건의 회오리와 6.25동란 속
 피난민 수송선 폭격으로 많은 인명이 산화되고
 사라호 태풍으로 100호 침수, 소실 등
 격동의 세월 인내하여
 희망찬 21세기 열었노라
 연도교 설치로 일일생활권 이루니
 꿈꾸던 육지가 그 얼마던가?
 바다목장,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관광어촌의 꿈 이루니
 안도의 앞날은 밝기만 하구나
 안도여 더욱 전진하라
 안섬 후손이여 영원하라!



유래비

2008. 12
 안도주민 일동

라. 안도의 어제와 오늘

1) 경신 대화재

1860년(경신년)에 마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불이 났다. 그때 당시 안도 마을은 300여 호가 대부분 초가집이었고, 좁은 도로에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300여 호 중에서 한 집(안도리 898번지)만 남고 전소하였다. 마을이 불타 생계가 막막해진 주민들은 당시 봉산(封山)으로 조선 왕실에서 민간인 입주가 금지되어 있던 금오도를 비롯해 서고지 기타 등지로 이주를 많이 하였다.

그후 마을 어귀에 소금을 묻어서 재앙을 막으라는 어느 스님의 권고로 안도리 794-1(임야), 999-1(전)에 소금을 묻고 정월 대보름에 매구를 치며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2) 일본인들의 어업활동⁹⁾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의 『한국근대사료집성(韓國近代史資料集成)』에는 조선어업협회(朝鮮漁業協會)가 우리나라 각 어장을 돌아보고 펴낸 1897년 12월 15일의 보고서(巡邏報告書)가 탑재되어 있는데, 1897년 남면 안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들의 어업 활동에 대한 기록이 있다.

조사 지역	종류	선적	어선 수	승선 인원	어장	1개월 동안 1척이 올린 어획고	면허 여부
안도 (雁島)	도미낙시(鯛繩)	가가와현(香川縣)	12	42	안도 서북쪽	98엔	있음
	부속선	"	6	12	"	.	있음
	방그물(배후릿그물手繰)	야마구치현(山口縣)	3	10	"	?	있음
	계		21	64			

일본 시코쿠의 가가와현과 혼슈 끝에 있는 야마구치현의 어부들이 안도의 서북쪽에서 도미낙시(鯛繩)와 외줄낙시(手繰)로 고기잡이를 하는데, 출어한 어선과 잡은 고기를 일본으로 운반하기 위한 부속선을 포함하여 21척이며, 64명이 참여하고 있다.

9) 남면지편찬위원회, 『남면지』, 2017

또한 안도(雁島)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안도는 23개의 열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본인은 안도와 부도 2곳에 머무른다. 안도는 여름철 서남풍을 피하기 좋고, 부도는 가을과 겨울 동남풍을 피하기에 좋다. 안도 사람들은 인정이 많으며, 일본어업협회 우편함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1899년 2월 28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안도 주변에서 장어(章魚)를 미끼(餌料)로 도미를 잡는데, 생선을 소금에 절이는 배(鹽切船)에 팔며, 하루에 잡는 양은 80~150마리로, 375g 1마리당 가격은 1전 8리(一錢八里)였다.

조사 지역	종류	선적	어선 수	승선 인원	회원 여부	면허 여부	비고
안도 (雁島)	도미낚시(鯛繩)	히로시마	9	36	회원	있음	
	”	에히메	28	112	”	있음	
	”	가가와	5	20	”	있음	
	부속선	히로시마	2	7	비회원	없음	소금에 절여 일본으로 운송
	”	히로시마	1	3	회원	있음	
계			45	178			

1897년과 1899년 2년 사이에 안도 주변으로 도미를 잡으러 온 배는 219%, 어민은 278%가 증가하였으며, 출어 지역도 히로시마와 에히메현 등으로 넓어지고 있어, 일본인들이 남면 지역의 어장에 급속히 파고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 남면 지역으로 고기를 잡으러 온 배들 대부분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조선어업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배가 많아 우리나라에서의 일본인 어업을 이 협회가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어민의 우리나라 근해 어업 진출은 어족 자원의 남획, 어장을 둘러싼 우리 어민과의 충돌, 의병에 의한 일본 어민 공격, 잡은 해산물의 처리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켰으므로, 일본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되었다.

1900년 8월 29일, 부산 주재 일본 영사 노세 다츠고로(能勢辰五郎)가 외무대신 아오키 슈조(青木周藏 殿)에게 보낸 「일·한 무역진흥 확장 등에 관한 건」이란 보고서에서 ‘조선 연해 어업 보호 및 단속(取締)에 관한 의견(卑見)’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대응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 남쪽 4도에서의 우리나라 어업은 10여 년 전만 해도 불과 수십 척의 작은 배가 보통의 어구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며, 어획물 같은 것도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한국인에게 공급하는 데 불과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어선의 증가가 두드러져 작년과 올해 같은 때는 한 해의 출어선이 15,00척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운반선(小運船)이라고 부르던 것이 대형으로 바뀌었고, 어업 도구도 해마다 개량되어 잠수기선, 단노(蛋蓆)나 정어리 그물(鱚網, いわしあみ) 같은 것으로 점차 촘촘해졌다.

그 결과 드디어 어족을 남획하고 번식을 방해하여 어족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고래와 해삼과 같은 것이 최근 포획고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어선마다 경쟁하는 문제점이 생겼다. 따라서 일본 어민이지만, 소재지 지방관과 한통속이 되어 일본인을 빼고 어장을 독점하려는 비열한 사람(卑劣漢)마저 생겼다.

한편, 한국인들도 최근 어획의 감소와 함께 정어리 그물·대구를 잡기 위해 바다 속에 치는 그물(鱚網, たらあみ)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 어장에 와서 그들의 이익을 빼앗는 일본인이 있다고 하여, 해마다 어업 시기가 되면 분쟁이 그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가 잇따라 나오는 데도 일본에서 오는 어선은 매년 증가하기만 하니, 만일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지금부터 10년이 못 되어 한국 영해의 어업도 절망적으로 될지도 모른다. 이에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本館)에서는 부산항의 조선해동어조합연합회(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 본부 출장소 직원 및 그 업자들에게 한국 연해를 일본의 영해처럼 여기고, 한국인과 두텁게 사귀며, 어족 자원을 보호하도록 계속 타일렸지만, 도저히 그 효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 와서는 일본에서 한국 연해 어장으로 곧바로 와서 감찰 없이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

저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단속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니, 그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또 과거의 일본 어선은 어획물을 그 지방에서 판매하는 데 지나지 않았으나, 근년에는 이를 팔리거나 훈제하여 일본으로 수송하는 것이 많은데, 그들은 육상에서 일삼아할 수 있는 편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

또 육지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生洲)을 어장 부근에 설치할 수 있다면 선어(鮮魚)를 곧바로 일본으로 수송할 수 있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제반 설비로 보아 거제(巨濟), 욕지(欲知), 소안(所安) 및 안도(安島) 네 섬에서 약간의 토지를 빌려 어류의 훈제 건조 저장 등에 사용하는 한편, 어민의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의 4섬에 순사 2명씩을 파견하여 주둔시키고,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書記生), 하급 경찰(警部), 수산 기술원(水産技手) 각 1명을 어업지의 중앙인 소안도에 머무르게 하여 통어조합연합회에서 마련한 작은 증기선(小蒸氣船)으로 각 어장을 순회하고, 서기생과 경부를 시켜 그곳 어민 간의 교섭 문제를 다루게 하며, 또 수산 기수로 하여금 어장의 탐험과 어족의 보호 및 번식 등을 맡게 한다면 일거양득일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조선 연해는 오래도록 일본 어민의 보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¹⁰⁾

10)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174&itemId=jh&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141&levelId=jh_014r_0130_0480

한국 연근해가 황금 어장임이 소문으로 퍼지자, 고기잡이를 위해 오는 일본 어선들도 해마다 증가하게 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의 보호와 장려 속에 일본 어민의 본격적인 출어와 이주가 시작되었다.

1904년 러·일 전쟁의 시작과 더불어 한일어업조약을 고쳐 전라도, 경상도에만 근거지를 허락한 것을 전 조선으로 확대하였으며, 1908년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일본인도 어업권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근거지 정착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이주 어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고기를 잡던 통어(通漁) 어업 시대에서 이주 정착 어업 시대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통어 어업의 문제점은 어획물 처리로, 한국 근해에서 일본까지 운반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어획물이 변질되기 쉬웠다. 한국에서 처리하고자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다지 생선을 많이 찾지 않았으며, 또한 말이 통하지 않아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한국 내에 어획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지, 즉 이주 어촌이 필요하였다.

이주 어촌은 보조 이주 어촌과 자력 이주 어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전자는 지방 자치 단체나 수산 단체가 계획하고 보조하여 만드는 것이지만, 서류나 도면상으로 끝난 경우가 많아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어업 기지로서의 입지 조건이 좋고 자금 보조와 감독자가 좋은 곳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모범적인 어촌으로 경상남도 통영군의 미륵도에 만들어진 오카야마현(岡山縣)의 이주 어촌이다. 이외에도 경남 사천군 삼천포면 동경리 팔장포에 만들어진 에이메현(愛媛縣)의 에이메촌, 경남 통영군 이운면에 만들어진 에이메현의 이리사무라촌(入佐村) 등이 성공한 보조 이주 어촌으로 알려져 있다.

자력 이주 어촌은 자기 자금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함으로써 튼튼한 기반을 갖춘 어촌으로, 이들은 보조 이주 어민보다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노력하여 이주 어촌을 형성해 나갔다.

1914년 1월까지 「내지인(일본인) 어업자 이주 어촌 조사」에 보면, 전국에 59개 어촌에 이르며, 총 986호, 3,900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단체 이주로 형성된 어촌이 10개이며, 5개 마을은 단체 이주가 포함된 것이다. 59개 어촌 중 가장 큰 마을이 경남 통영군 이리사무라촌으로 152호 641명이었다.¹¹⁾

일본 어민들은 이전부터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이른바 ‘돈벌이 어선(出稼漁船)’들에 의한 고기잡이를 해왔다. 어업은 잠수기 어업·주낙·외줄낚시·대구리형의 저인망(打夕瀨網) 등이었지만, 당시의 어선들이 대부분 5명 정도가 타는 소형 어선이고,

11) 여박동 앞의 논문, 155쪽.

기계에 의존하기보다는 바람에 의존해서 고기잡이를 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시의 한국 어업이 “한마디로 말하면 졸렬하다.”할 만큼 보잘 것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소규모 어선이라 해도 한국 연근해에 출어해 오는 일본의 어선은 상당한 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인들이 남면 지역에 들어와 잡은 고기를 가공하는 시설을 설치한 것은 1909년부터로 보인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된 1932년에 발행한 『조선공장명부(朝鮮工場名簿)』에 따르면, 일본인 강교학송(岡橋鶴松)이 1909년 4월, 연도리에 식료품 공업 허가를 받아 그의 이름을 딴 말린 정어리 제조장(煮乾鰵製造場)을 세운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어 1910년에는 길부설태랑(吉富雪太郎)이 안도에, 1914년 나카타 아라마쓰(中洲芳松)가 남면 심장리에 말린 정어리 제조장을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가옥 재료와 취락의 모습에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1918년 3월 14일과 3월 29일의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에는 “전라남도 여수군 남면 연도리와 안도리에 연도어업조합, 안도어업조합 설립을 허가한다.”라는 기록이 있어 일본인들의 남면 정착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데, 안도 어업조합은 마을 회관 옆자리에 세워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25년 안도 어업조합은 조합원이 165명, 예산은 14,331円, 연도는 215명에 11,388円이었다.¹²⁾



안도어업조합

○漁業組合事項 漁業組合設立ヲ許可シタルモノ左ノ如シ
 名 稱 安島漁業組合
 區 域 全羅南道麗水郡南面安島里
 事務所所在地 同
 許可年月日 大正七年三月二十日

12) 이진영, 「거문도의 근대어업 발전」, 최길성 편저, 앞의 책, 258쪽.

또한 1919년 4월 7일자 관보에는 안도의 길부설태랑에게 4월부터 11월까지 남면 우학리와 유송리 경계 지선에서 갈치(大刀魚)·조기(石首魚) 등을 잡을 수 있는 면허를, 송고·함구미·두모·안도 등의 해조류 채취(採藻) 업자나 어업조합에 우뭇가사리(石花菜), 미역(和布), 김(海苔) 등의 해조류 채취 면허를 주었다.

『동아일보』 1928년 7월 19자 기사를 보면 안도에서는 어업권 분쟁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도 심했음을 알 수 있고, 같은 신문 7월 17일자 기사를 통해 외래 자본의 침투에 따른 연도 주민의 어려움도 파악할 수 있다.

소리섬과 승강이목(신갱수도)을 사이에 둔 안섬은 금요일도 가운데 해산물이 풍부하기로 첫손가락을 꼽는 곳이니, 면적은 넓지 않으나, 조류와 포구의 출입이 어업에 가장 적당한 곳이다.

주민은 조선인과 일본인을 합해 이백 여 가구에 인구는 천여 명이다. 이 좁은 곳에

그 근해에서 나는 어업 생산액이 이십 여 만원인데, 그 중 일본인이 안도 어장에 들어와 고기를 잡아(入漁)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이 섬에 떨어지는 것만 해도 십 만원에 가까워 그들의 생활은 다른 섬에 비해 제일 풍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그들의 생활을 위협할 큰 문제가 일어났으니, 이것은 어업의 권리문제이다. 이 섬에서 가장 많은 생산액을 차지한 것은 멸치 어장인데, 멸치가 가장 많이 잡히는 이야포에서 안섬사람이 멸치를 잡지 못하게 된 것이다.

즉, 섬사람의 공동어장이었던 이야포가 일본인의 소유가 되어 그 동안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으나, 좁은 보호 구역, 섬사람의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해 어업권을 가진 사람에게 직접 방해가 되지 않으면 전통 어업 방법으로 어업을 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인가되었기 때문에 안도 사람들은 이야포 안에서 멸치를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 사람 여섯 명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어장이 된 뒤로 그 포구 안에 안도 사람의 멸치배가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여 섬사람들로서는 어업을 할 곳을 잃었다.

때문에 새로 문제가 일어나, 최근에는 순사가 밤마다 어장에 나와도 싸움이 그칠 때가 없다. 섬사람들은 사할이 걸린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여수군청에 이백 여명이 진정하러 몰려가 밤을 세운 일도 있고, 도청에 진정 위원을 보내기도 했다.



“조선총독부 고시 제51호로, 1919년(대정 8년) 3월 20일 왼쪽에 기록된 공립소 학교의 설치를 허가하는데, 학교 이름은 안도공립심상소학교이며, 전라남도 여수 군 남면 안도리에 위치한다.”라는 1919년 3월 24일자 『관보』를 통해 남면 지역에서는 안도에 가장 먼저 일본인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안도심상소학교 제17회 졸업(1936)

朝鮮總督府告示第五十一號
 大正八年三月二十日左記公立小學校ノ設置ヲ認可ス
 大正八年三月二十四日
 朝鮮總督 伯耆長谷川好道
 學 校 名 位 置
 安島公立尋常小學校 全羅南道麗水郡南面安島里

1920년대 이전 안도에 일본인이 얼마나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구하기 어려우나, 1925년 11월 11일 발간된 『개벽』제63호에 “여수군의 현재 인구는 15,184가구, 84,483명이며, 그 가운데 일본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은 여수 459가구에 1,807명, 거문도 113가구에 376명, 안도 31가구에 116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안도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그곳에서 얻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학교를 세운 것이다.

안도에 일본인의 자녀만을 위한 심상소학교가 세워지자, 이에 자극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립학교를 세워 대응하고 있는데, 1923년 3월 8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안도에 사립보통학교(私普校) 그 지방 유지가 설립

전라남도 여수군 남면 안도는 800여 명이 사는 섬인데, 교육 기관이 하나도 없으므로 그곳 사는 김도상(金道祥)이라는 청년은 작년 봄에 사립보통학교를 세우기 위해 유지의 기부금 만여 원을 모아서 학교 건물을 세우고 즉시 당국에 허가를 제출하여 즉시 개학하고 남녀 80명을 받아들였다.

安島에私普校
 . 그 지방 유지의 설립
 전라남도 여수군 남면 안도(麗水郡南面安島)는 품백(品白)의 섬으로 그곳 사는 김도상(金道祥)이란 청년은 작년 봄에 사립보통학교(私普校)를 설립하려고 유시의 동정금만 원 정도 모아 학교(校舍)를 건축하고 즉시 당국에 사립보통학교 허가를 제출하여 즉시 개학하고 남녀 학생 80명을 수용하였다는데 전도가 매우 영광하다(여수)

3) 안도의 여순사건

1948년 11월 1일 백두산호랑이라 불리던 김종원 대위가 5연대 부대원과 함께 여수~부산간 연락선 동일호를 타고 이야포로 상륙하였다. 진압군은 주민들을 국민학교 운동장에 집결시킨 다음 노인, 어린이, 청년, 여자 등으로 분류하고 부역자를 찾아내라며 주민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종일(당시 24세)을 사살하였는데 한씨는 “나는 아무 죄도 없고 일본 군대까지 끌려 갔다 온 사람인데 내가 왜 죽겠냐”면서 안심하고 끌려 나갔다.

그러나 김종원은 한종일씨의 사살을 명했고 명을 받은 병사는 차마 조준 사격을 못하고 허공에다 총을 쏘았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김종원은 일본도를 빼서 칼등으로 병사의 목을 치자 병사는 놀라서 도망가고 다른 병사가 대신 총살하였다. 한종일 씨를 사살한 후 당시 국민학교 교사였던 이종섭과 김기정을 안도 우체국 옆에서 사살하였다.

이후 군인들은 40여 명의 청년들을 결박한 다음 안도 선착장으로 끌고 갔고 두 채의 가옥에는 불까지 질렀으나 주민들이 재빨리 진화하였다. 끌고 가는 과정에서는 김종원 대위 몰래 결박을 풀어 도망가게 하는 병사들이 있어 희생자의 일부를 줄일 수 있었다. 선창에 끌려온 청년들은 다시 분류하여 11명을 처형하였는데 제일 먼저 김부영(당시 23세) 씨를 처형하려고 하자 김부영 씨는 한참 동안 억울함과 처형의 부당성을 주장하다가 총살당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크게 외쳤다.

안도의 경우 좌익이 많지 않았다는 증거는 안도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타지역 사람들이었고 간부들 역시 사상과는 거리가 먼 나이 많은 노인들이었다. 또한 김부영 씨는 지식인으로 젊은이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었던 남면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처형의 부당성을 한참 동안 강력히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형 당시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만세를 크게 외쳤다는 것은 그가 우익이었다는 것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 한다.

당시 안도에 피해가 컸던 이유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정치망(오시기)을 안도에서 운영하다 우학리 사람 명모씨에게 임대했는데 일제가 패망하자 명모씨가 정치망을 인계받아 사업을 하면서 1948년 법이 제정되어 어업조합어민회로 정치망을 이양하라는 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장을 계속 운영하였다. 이에 반발한 안도 주민들은 명모씨의 어장을 강제로 철거하게 되었다. 이후 명씨의 고발로 마을 주민들이 감옥생활을 하는 갈등이 발생하였고, 여순사건 발발 후에 진압군이 여수를 탈환하게 되자 명씨가 여수 시내로 가서 안도에 좌익이 많다고 무고를 함에 따라

5연대가 안도에 상륙하게 되어 희생이 많았던 것이라고 안도 주민들은 추정하고 있다. 당시 김종원이 타고 온 배에 명모씨가 함께 타고 있었다고 주민들이 증언하였다.

4) 이야포 미군 폭격사건

이야포 미군 폭격사건을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춘송 씨(당시 12세)의 증언과 안도 이야포 주민들의 증언을 수록한다.

이춘송 씨 가족 7명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에서 월남하여 서울 마포구 염리동 월남 피난촌에 피난하였다가 부산으로 내려왔다. 부산에서는 진구 성남국민학교에 집결하여 일주일간 머물다가 같이 수용되어 있던 350여 명의 피난민들과 함께 부산 연안부두에서 7월 21일경 여객선을 타고 안전한 항구인 제주도를 향해 출항하여 경남 통영의 충무국민학교에 임시로 머물다, 7월 27일 쌀 배급을 받고 경남 육지도에 입항하였다. 육지도의 학교에 머물다가 다시 출항하였다. 1950년 8월 2일경 오후 저녁 무렵에 안도 이야포 포구에 정박하였다. 일부 피난민들은 전마선을 타고 내려와 섬 주민들에게 식량과 식수를 얻어가고, 샘에서 빨래도 하였고, 이야포의 일부 주민들은 피난민들에게 식사도 대접하였다.

8월 3일 오전 제트기 4대가 2대 1개조로 이야포 포구를 선회하다 조업중인 피난선에 기총사격을 가하여 이야포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피바다가 되었다. 당시 피해규모는 100~150명 가량 희생되었다고 추정한다. 일부 피난민들은 육지로 식량과 식수를 얻으러 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사건 이후 4~5일째 되던 날에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해변에 방치되었던 시신들을 피난선으로 옮긴

후 배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피난선은 결국 침몰하였다. 여수시의회에서는 이야포사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2년에는 이야포평화공원을 조성하였다.



이야포공원

5) 영암부대(영암 경찰대) 사건

한국전쟁으로 부산 일대만 남겨두고 전 국토가 인민군에게 함락되었을 때 여수로 입성한 인민군은 금오도를 거쳐 심장리에 소규모의 병력이 주둔하였고, 심장리를 거점으로 나룻배를 타고 인민군이 안도에 진주하였다. 산으로 쫓겨갔던 영암부대는 밤이면 마을로 나와 활동하였다고 한다.

영암부대는 영암에서 후퇴한 경찰들로 8월 초까지 안도와 연도에 머물다 육지도로 피난하였다. 1950년 7월 말 영암부대가 안도에 머물 때 인민군은 1개 분대 규모의 병력이 안도에 머물다 심장리로 돌아갔는데 당시 안도의 상산에 은신해 있던 영암부대가 저녁 무렵 안도마을로 들어왔다. 당시 심장리 망산에서는 박격포 4~5발이 발사되어 안도마을 가옥이 부서지는 사건이 있었다. 마을로 들어온 영암부대는 안도의 전 주민을 안도초등학교에 집결시켰는데 총을 든 군인들의 등장엔 놀란 아주머니가 바지에 오줌을 싸게 되어,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는데 집에 가서 농문을 열어보니 농 안에 인민군 여자 1명이 숨어 있어 영암부대에 신고하였다. 잠시 뒤 생포된 인민군 여자는 영암부대의 칼에 온몸이 찢려 죽었고 마을 앞 길거리에 버려졌다. 영암부대는 이후 연도를 거쳐 육지도로 향했고 이후 안도에 상륙한 인민군이 길거리에 버려진 동료들 보고 격분하여 신고한 아주머니를 같은 방법으로 보복해 죽이고, 관련된 사건으로 인하여 주민 2~3명이 사살되었다.(편집자주: 당시 상황을 알고있는 안도마을 주민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6) 두명안 준설



두명안



두명안 입구

옛날에는 두명안 입구가 30m 정도로 좁아서 배 한두 척이 겨우 드나들 수 있는 정도였다. 두명안 입구와 윗두명안과 아랫두명안 사이에 골이 있어 간조시에는

건너다닐 수 있었고, 두명안 입구 위로는 보리수나무 숲이 우거져 평상시에도 건너다녔다고 한다.

간조시에는 2m 이상의 깊이가 있어 장어, 갈치, 멸치, 농어, 방어 등을 잡기도 했으며 여객선 웅천호가 윗두명안까지 들어와 물품을 하역하기도 하였다. 한때 아랫두명안에서 물을 건너다가 배가 전복되어 주민 6명이 익사하는 불행한 사고도 있었다.

1982년 들어 두명안 입구부터 준설하기 시작하였는데 안도리 859-1번지 현재 우체국 입구를 준설할 때 직경 70cm가 넘는 고래뼈로 추정되는 등뼈가 나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태풍이 불면 인근의 서고지, 심장리, 우학리 등에서 선박피항지로 이용하고 있다. 2007년 윗두명안 일부를 준설하였으며, 정주어항개발계획으로 윗두명안을 준설하고 이야포에서 관을 매설, 이야포만 해수를 끌어들여 인공늪시터를 조성하였다.

7) 안도대교 건설¹³⁾

안도대교는 도서민과 탐방객의 교통편의 제공 및 낙후된 지역 개발을 도모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연계한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을 위해 건설하였다.

2003년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으며, 2005년 5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자연보존지구라는 이유로 보류되었다. 2006년 1월 안도 주민들이 건의서를 작성, 정부 부처에 전달하여 2006년 7월부터 안도 연도교 가설공사가 시작되었다.

국내 최장 경간길이 200m로 가설된 복합 엑스트라 도즈드교(Extra-dosed교)인 금오도~안도간 연도교는 주탑의 높이는 46.2m이며 해수면에서 교량 상판까지는 27.1m의 통과 높이를 유지함으로써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고려해 형하고를 적용했다. 교량의 주탑과 상판을 연결하는 사재케이블은 모두 36개로 케이블 하나에 들어가는 강선의 크기는 직경 12.5mm 37개 가닥으로 고밀도 폴리에틸렌 방식으로 포장된 제품을 사용했다. 콘크리트 상판은 주탑 위에서 좌·우 대칭으로 이동식 동바리 시스템인 폼 트레이를 사용해 점차 전진하면서 교량 상부공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FCM공법이 적용됐다.

이곳 연도교의 특징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주탑의 기존 상식을 탈피해 주탑 높이가 낮은 공법으로 섬과 섬끼리 펼쳐진 아름다운 다도해의 주변경관을 잘 살렸다. 안도대교는 교량 길이 360m, 폭 12.5m로 36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2006년 7월에 착공하여 2010년 2월 18일 공식 개통되었다.

13) 디지털여수문화대전



안도대교



안도대교 공사

8) 안도(대부도)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조성

안도 서고지와 대부도에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이 2017년부터 추진되었다. 해양낚시 관광을 선도하는 특화어항으로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낚시가 일상이 되는 공간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단독(개인)형 혹은 소규모로 방문하고 있는 낚시객을 유입하기 위해 낚시기반과 낚시활동 지원시설 확충, 대부도 유희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방파제 연결교량을 설치하여 개별 낚시객을 위한 공간이자, 친수공간으로서의 낚시데크 도입을 통해 독립적인 낚시활동 특화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가족형 여가활동공간이자, 방문객 체류를 위한 낚시지원 기능으로서 캠핑장, 가두리낚시터 등의 휴양/체험 기능을 확충하여 기존 어항기능시설 정비 및 유희부지 활용을 통한 휴양/체류 기능 확충으로 전문 낚시객 뿐만 아니라, 일반 가족단위 방문객도 유치할 수 있는 낚시관광 특화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중에서 안도 서고지와 대부도를 연결하는 보도교는 2017년 10월 26일 착공하여 2020년 11월 6일까지 준공하였다. 길이는 393.6m, 높이 19.5m로 상부는 강박스형 거더교 구조로 크레인 가설 공법을 사용했다.



대부도 연결보도교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3. 섬 생활의 변천

가. 안도의 생업

1) 농업

보리와 고구마는 휴경지 없이 연작(連作)으로 지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작물이다. 보리를 수확한 후 보리밭을 갈면 보리를 베고 난 후의 보릿단이 고구마를 재배하는 거름이 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보리는 고구마와 더불어 중요한 주식이었으나 1980년대 들어와 쌀보리 재배에서 맥주보리 재배로 전환하여 전량 수매 판매되어 주식은 쌀로 대체되었다.

고구마는 농토가 기름지지 않아도 재배할 수 있는 작물로 임야를 쉽게 개간하여 가꿀 수 있었기 때문에 1980년대 이전까지 안도의 대표적인 산물이었다.

절간으로 출하할 때에는 마을마다 야적장을 만들어 선적할 때까지 보관하였으며, 용구배가 향아리, 장독 등을 심고 오면 절간고구마로 물물교환하여 가정에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들어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가 멧돼지가 출몰하면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곳은 드물다. 1990년대 들어와 약효가 우수한 황금과 방풍을 심어 농가의 소득원으로 삼기도 했다.

한편, 안도에서 쌀은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 골짜기물을 대기 쉬운 곳에 자연적으로 재배 여건이 주어진 곳에서만 조금 벼농사를 지었다. 그마저도 1970년대부터는 재배하지 못하고 전량 외부에서 들여와야만 했다.



고구마농사(1995년)¹⁴⁾



리사무소앞 보리 건조(1993년)¹⁵⁾

14) 여수시 남면 안도, 『안섬지』

15) 여수시 남면 안도, 『안섬지』

2) 어업

안도주민들이 논과 밭에서 나는 작물만으로는 생계를 이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바다가 생활 터전일 수밖에 없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어업조합이 만들어져서 어민의 대표창구 역할을 하였고, 천초, 세모, 삼치, 문어 등 고급 해산물을 전량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무역선이 드나들었다.

안도 주민들은 예전부터 무동력선을 이용하여 멀리 작도까지 나가 어로작업을 하였으며, 갈치잡이(외줄낚시), 문어단지잡이(연승어업), 승어삼마니(자망), 이야포 들망(분기초망), 쫄잡이(석조망), 오시끼(정치망) 등이 번성하였다. 그러나 어족 자원이 점차 고갈되자 50해리 밖에까지 가서 저인망 어업 조업구역이 넓게 형성되었으나, 정부의 시책으로 2004년부터 조업이 금지되고, 어선어업이 구조조정됨에 따라 점차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

안도 서고지 어민들은 1990년대부터 불락, 돔, 우럭, 감숭어 등 어류와 전복, 홍합, 다시마 등의 패류를 양식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1) 안도 어업조합

1918년 안도어업조합이 설립되었다. 이때 안도 선창에 종대(풍향대)가 설치되었는데 철탑에 풍향, 풍속계와 종을 설치하여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관측하였다. 어로활동을 하다가 안개가 끼어 어항으로 들어오지 못할 때 종을 쳐 어항으로 인도하였다.

1961년 기존의 연도어업협동조합, 심장리어업협동조합, 남면어업협동조합, 안도어업협동조합 등 4개 조합이 합병되어 안도어업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1973년 안도어업협동조합이 폐지되고, 여천군 어업협동조합으로 합병되었다.



어선



종대(풍향대)



옛 종대16)

16) 여수시 남면 안도, 『안섬지』

나. 안도의 생활문화공간

안도에는 샘이 2개 있었는데 물먹는 샘과 빨래하는 샘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큰 샘은 물이 좋아서 현재까지 모터를 설치하여 허드렛물로 이용한다고 한다. 이야 포에도 샘이 2곳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마을이 크다보니 늘 식수가 부족하였고, 특히 가뭄이 들 때는 큰샘에서 줄을 서서 물을 길러 날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1960년대 말 마을주민들은 안도리 98번지 음달 일대를 저수지로 조성하고자 공사를 시작하였다. 장비 없이 손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주민 한 명이 사망하고 몇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가까스로 완공하였으나 몇 년 가지 못하고 부실공사로 독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다.

1979년 정부지원과 마을 부담으로 안도리 778번지에 70t 저장 콘크리트 시설을 만들고 도로를 따라 가가호호마다 계량기를 부착, 상수도 시설을 하였다.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면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안도리 776-1번지에 90t 규모의 저장 콘크리트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수압과 기술 부족으로 누수현상이 심화되어 2003년 정부보조금으로 상수도 관로 시설을 현대식으로 시설하였다. 이후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음달상수도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 2006년 정부보조금을 받아 상수도 관로교체 및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다. 안도대교 건설 이후 금오도 상수원에서 연도교를 거쳐 가정으로 공급되는 관로시설이 설치되어 물 불편을 완전히 덜 수 있었다.

선착장 부근에는 마을 소유의 공터가 있어서 여수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2003년 12월 안호정을 준공하여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큰샘(2008년)



안호정

다. 선박

1) 해운교통

안도에서 본격적인 해운은 1930년 김부호가 여수를 출발하여 연도를 종점으로 회항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여일호, 창영호가 취항하였다. 오전 9시에 여수를 출발하는 신흥호와 오후에 여수를 출발, 돌산읍을 경유 안도, 연도까지 운항하는 신양호와 경주호 등 4척의 철선으로 된 여객선을 운항하여 도서와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으나, 1994년 11월 쾌속선 순풍호, 완도 페리호가 취항하여 1시간대의 여객선 쾌속화 시대를 열게 되었다. 2003년 11월부터 한림해운의 여객선 금오고속페리호가 하루에 2회 운항하고 있다.



신흥호17)



안도에 정박중인 금오고속페리

17) 여수시 남면 안도, 『안섬지』

라. 안도 주민들의 생애사

1) 사라져버린 상산동마을

안도의 가장 높은 산인 상산봉의 동쪽 해변에는 상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하여 상산동이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었다. 주로 바닷길과 밭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이 마을에는 1970년대 초 가장 많은 주민이 살았을 시기에 17가구 정도 있었다. 주민 대부분이 경주김씨 가문이었으며, 한 씨가 1가구 살았다. 상산동마을은 상산 남동쪽이 분지 지형이라 산이 바람을 막아줘서 겨울철에도 따뜻하여 “겨울에도 옷통 벗고 이를 잡았던 마을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 물이 좋았던 마을로 알려졌다.

그리고 상산동 주민들은 안도와 까치섬으로 알려진 작도 사이에서 문어단지과 고기잡이, 해산물을 채취하면서 안도에서도 가장 잘 사는 마을로 풍족하게 살았다. 그러나 살기 좋던 상산동마을에 1959년 사라호 태풍이 강타하면서 주민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사라호 태풍으로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6척의 배가 모두 파손되면서 마을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었던 바닷길을 못하게 되면서 밭농사만으로는 살길이 막막하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은 하나둘씩 안도의 이야포나 여수시내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말쯤 마을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빈집만 남고 모두 폐허로 변해버렸다.

김우완 씨는 1934년생으로 상산동마을에서 살다가 이야포마을로 이사하였으며, 김균용 씨는 상산동 경주김씨 가문의 큰집으로, 생존했을 당시 마을의 어른 역할을 하였다.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으며, 상산동마을에서 살다가 사망하였다.

상산동마을은 안도마을과 별도로 당집을 두고 당제를 지냈다. 마을 당집은 두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상당은 위패를 모시고 제를 지내는 용도로만 쓰고, 또 하나의 당집은 제주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목욕하고 제물을 준비하며 설수 있는 방이었다. 지금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다. 상산동마을 사람들이 바닷길을 하기 위해 배가 필요했는데 배를 댈 수



상산동

있는 선창이 너무 좋지 않았다. 마을 앞 선창을 ‘가지기미’라고 불렀는데 가지기미는 주변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배가 절벽에 부딪혀 깨어지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에는 가지기미보다 먼 곳에 있던 잇금이 자갈밭에 배를 두고 와야 했다. 정월대보름 등 마을 제사를 지낼 때면 가지기미 해안까지 내려가서 조상신께 헌식을 올렸다. 잇금이는 안도해수욕장 또는 백금포해수욕장이라 부르는 곳으로 이곳도 큰바람이나 태풍에는 안전하지 못해 이야포마을로 배를 옮기고 마을 언저리까지 인력을 빌려 배를 끌어 올려야만 했었다. 사라호 태풍 때는 이렇게 안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산동마을의 어선 대부분이 부서지고 말았다.

상산동에는 1990년대 말까지 할머니 한 명이 살았다. 할머니가 혼자 살게 되자 마을에 하얀 옷을 입은 귀신이 자주 보였다고 한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객지로 나간 가족들이 나이 많은 노모를 상산동에 살게 할 수 없다며 이야포마을로 모시고 나왔다고 한다.

2) 펜션지기 양유임 씨의 오지암마을 이야기

오지암마을은 안도마을 동쪽 안도해수욕장 남쪽 해변 구릉에 있는 마을로 아직도 당시의 주택들이 일부 남아 있다. 오지암은 오지바구(바위)라는 바위가 있어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오지암마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9가구의 주민들이 살았다.

오지암마을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5~6가구가 살아 번데기라 부르던 마을이 있었고, 북쪽에는 구신(귀신)이 난 동네라고 해서 불렀다는 ‘구신난동’이 자리하고 있어 보통 세 마을을 합쳐서 오지암마을이라 불렀다. 구신난동은 다른 이름으로 ‘구슬암’ 또는 ‘구실암’이라 불렀는데 귀한 구슬이 세 말이나 있었다는 구슬암이란 암자가 있어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오지암의 북쪽 진입로는 안도해수욕장 100m 전 지점에서 우측 남쪽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진입로 입구인 구실암 지역에 펜션이 있다. 이 진입로는 오지암, 번데기, 상산동을 거쳐 안도의 남쪽에 있는 이야포마을로 이어지는 돌레길이다. 상산동에서는 안도에서 가장 높은 곳인 상산에 오를 수 있는 등산로가 있다.

해오름펜션을 운영하는 양유임 씨는 1957년생으로 오지암마을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 성년이 되어 서울로 올라가 결혼한 후에 2017년경에 구실암으로 이사했던 친정집 터로 돌아와서 해오름펜션을 짓고 살고 있다. 양유임 씨의 아버지 양태환 씨는 곡성 출신으로 여순사건으로 빨치산과 관련된 일을 겪으면서 정치적

혼란을 피해 별이가 좋다는 안도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 마을에 들어오고 얼마 후에 마을주민 이춘동 씨에게 인정받아 그의 아들처럼 지냈다고 한다. 이춘동 씨의 큰아들과 친구이기도 해서 의형제를 맺기도 했다.

이춘동 씨의 가족은 설을 앞두고 바다에 조업을 나갔다가 사망하였다. 1951년경 음력 12월 28일은 아침부터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이춘동 씨의 일가는 오지암에 있던 2척의 노 젓는 배를 이용하여 작도 부근에 문어단지를 놓으러 갔다. 이웃에 있는 상산동마을에 살던 김우환 씨(당시 18세 정도로 추정) 가족들은 일찍 출발하여 문어단지 300개를 놓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뱃길 중간쯤에 이춘동 씨 일 가족이 2척의 배에 나눠타고 조업을 나가는 것을 보고 날씨가 좋지 않음을 걱정하면서 돌아왔다고 한다. 당시 2척의 배에는 이춘동 씨 3형제와 두 아들, 이웃집 한 사람 등 6명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으로 배도 사람도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이들은 날씨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남지 않은 설을 보내고 문어단지를 거둬들이기 위해 무리한 조업을 나갔다가 변을 당하고 만 것이다.

양태환 씨는 이춘동 씨가 사고로 사망한 후 형편이 어려워진 친구 집을 돕기 위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친구의 여동생과 결혼을 통해 한 가족이 되었다. 당시 신부는 18살로 9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맺어질 수 있었다.

오지암마을에는 이 외에도 김군포 씨 가족이 살다가 외지로 나갔으며, 문의구 씨는 원양어선을 타기 위해 부산으로 이주하였고, 그의 동생 문행오 씨는 오지암에서 살다가 사망하였는데 그의 가족들은 문의구 씨가 있는 부산으로 이주하였다. 문종배 씨도 오지암마을에서 사망하였는데 가족들은 여수로 이주하였다. 이 외에도 이정소 씨, 박영철 씨, 이용구 씨, 이승철 씨, 박도철 씨 등이 살았다.

한편, 번데기마을과, 오지암마을, 구실암마을은 같은 반에 속해 있어 한마을처럼 생활하였다. 오지암마을에는 당집이 따로 없어 안도마을 당제에 함께 참여했다. 장례식은 오지암마을 단위로 초상을 치렀는데 상엿집이 오지암 앞 포구에 있었는데 양유임 씨는 상엿집이 무서운 곳으로 기억된다고 했다. 정월이면 안도마을과는 별도로 오지암마을 사람들만 매구를 쳤다.



오지암

4. 안도의 민속문화

가. 안도의 지명유래



안도 지명지도

- 대배다서 <섬> : 소유마을의 후서 동쪽에 있는 섬. 배처럼 생긴데다 배 등만 보인다 하여 명명됨.
- 소배다서 <섬> : 대배다서와 나란히 있으며, 배처럼 생겼고 대배다서보다 작은 섬.
- 외삼섬 [외삼서, 외삼도] <섬> : 안도마을 북쪽에 있는 섬으로 3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밖에 있다 해서 외삼섬이라고 함.
- 중삼섬 [중삼서] <섬> : 안도마을 북쪽에 있는 섬. 삼섬 중 가운데에 있음.
- 초삼섬 [초삼서, 초삼도] <섬> : 안도마을 북쪽에 있는 섬. 삼섬 중 맨 앞에 있음.
- 두멍안 [두만안] <해안> : 안도마을 내에 있는 호수. 옛날에 해적단의 은거지였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섬 밖에서는 호수 안쪽이 전혀 보이지 않음.
- 이야만 <개> : 이야포마을 앞 해안.
- 반성수도 <해협> : 안도마을과 초삼섬 사이에 있는 바다길. 안도에서 초삼섬까지 거리는 약 1km 정도.
- 제당(察堂) <당산> : 안도마을 뒷산 정상에 있음. 1582년 건립 추정
- 공동묘지 <묘> : 안도마을 서쪽 정상에 있는 묘지
- 물양장 <물양장> : 서고지마을 남쪽에 있는 수산물 유통시설
- 서고지 <마을> : 안도마을 서쪽에 있는 마을. 서쪽에 있다 하여 칭함
- 부도(釜島) [가마섬] <마을> : 서고지마을 서쪽에 위치하며 섬의 형태가 대장간의 가마를 닮아 가마처럼 생겨 가마섬이라 하며 한자로 부도라 함
- 대부도 <섬> : 서고지 서쪽의 섬
- 노적섬 <섬> : 대부도 동쪽 작은 섬
- 장감섬 <섬> : 대부도 북쪽 장지마을 사이에 있는 섬
- 마당널 <해안> : 서고지 북쪽 해안으로 마당처럼 너른 해안
- 목넘 <지역> : 금오도와 안도대교로 연결된 지역으로 낮은 목으로 이루어진 지형. 안도대교 건설로 목넘 지역의 조개더미에서 안도의 신석기 유적이 발굴됨
- 신추꼬터리 <해안> : 안도대교가 있는 지역의 북쪽 끝

- 신추(백초, 白草) <해안> : 여수 지역 대부분의 섬에 나타나는 해양지명으로 하얀 풀이라는 의미로 백초로 기록하고, 하얀 풀이 많아서 명명되었다고 전해진다. 신추 또는 선추라 전해지며 추가 심한 곳이란 의미임. 추는 거센 파도가 닿거나 심한 절벽이 있는 곳에 명명되는 해양지명
- 두명안 <해안> : 안도의 안쪽에 있는 호수 같은 바다
- 이야포, 이애포 <개> : 안도의 남쪽에 있는 포구
- 빈지 <지역> : 이야포 남서쪽의 해안
- 초분터 <터> : 이야포 남서쪽 해안으로 대대로 초분을 설치했던 곳
- 기름바위 <바위> : 이야포 남서쪽 해안으로 기름을 바른 것처럼 번들거림
- 평널 <해안> : 이야포 남서쪽 해안의 평평한 너럭바위
- 낭끝 <곶> : 이야포 남서쪽 해안의 가장 끄트머리
- 수박통 <통> : 낭끝 부근에 있는 수박 모양의 둥근 통
- 무싱이 <해안> : 이야포 남쪽 해안으로 돌출 된 지형의 통칭
- 워새밭골 <해안> : 무싱이 끝 부근에 역새가 많아서 지어진 이름
- 빼금이 <지역> : 안도마을 북쪽 해안
- 숲속 <지역> : 안도마을 북쪽 해안
- 음달 <지역> : 안도마을 북쪽 해안
- 글쓴바위 <바위> : 안도마을 북쪽 해안에 글씨가 새겨진 바위로 한자로 보이는 글씨가 일부 지워져서 어느 시기에 새겨졌는지 판독이 불가능함
- 아니네물먹는데 <지역> : 동고지마을 북쪽 해안의 샘이 있는 곳으로 아니네는 사람 이름
- 용왕당(보리마당) <지역> : 동고지마을 보리마당이 있던 곳으로 용왕제를 올리던 곳
- 안남이통 <통> : 유신시대 안남이라는 사람이 빠져서 죽은 통
- 묘골 <지역> : 동고지마을 남쪽의 해안으로 묘가 있는 골
- 이금이 <해안> : 백금포의 다른 이름

- 오지말 [오지암], [오지바구] <마을> : 안도마을 동남쪽 약 1.2km 지점에 있는 옛 마을로, 마을 형세가 까마귀와 비슷하다 하여 명명됨. 지금은 주민이 없음
- 가마골 <골짜기> : 상산 동쪽의 골짜기
- 절터 <터> : 상산 북쪽에 있었다는 절터
- 상산(上山) [상산봉] <산> : 안도 동남쪽에 있는 산. 안도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높이 약 207m.
- 찰떡바위 <바위> : 상산 정상부근에 있는 찰떡처럼 네모반듯한 바위
- 상산동 <지역> : 상산으로 가는 지역에 있었다는 마을 터
- 소이야골 <골짜기> : 작은 이야포 골짜기
- 촛대바위 <바위> : 이야포 남동쪽 해안에 있는 촛대 모양의 바위
- 벼락바위 <바위> : 이야포 남동쪽 해안에 있는 벼락을 맞았다는 바위
- 작은이야포 <지역> : 이야포 동쪽의 작은 해안
- 작은이애 <지역> : =작은 이야포
- 두렁여 <여> : 작은 이야포 남고지 끝에 있는 여



상산



찰떡바위¹⁸⁾

18) 여수시 남면 안도, 『안섬지』

나. 안도의 설화와 민요

1) 설화

(1) 초삼도 전설

안도마을에 젊은 총각이 있었는데 이웃집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처녀는 총각이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냉담하게 외면하였다. 짝사랑으로 상심하던 총각은 상사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 총각이 죽은 후 뱀이 나타나 처녀의 아래턱을 물고 목을 휘감고 놓아주지 않았으나 처녀가 머리를 빗는 동안에는 뱀이 물었던 턱과 휘감았던 목을 풀어주었다. 처녀의 가족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뱀을 물리치려고 하였으나 허사로 돌아가고 처녀도 뒤늦게 후회하였으나 때는 이미 지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던 차, 부모가 배를 싸주며 무인도에 가서 뱀과 함께 죽기를 강요하여 뗏목에 실어 초삼도에 버렸다. 초삼도에 도착한 처녀는 높은 절벽에 올라 부모가 준 배를 먹으며 집을 바라보고 대성통곡을 한 후 뱀과 함께 낭떠러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처녀가 죽은 후에 배나무가 자라 봄이면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처럼 꽃이 곱게 피어 이곳 밑을 지나는 어부들이 안녕과 풍어를 빌며 총각과 처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생각하며 제를 올리고 추모했다고 한다.



초삼도

(2) 두명안 해적단 전설

안도마을은 섬 입구로부터 북에서 남으로 S자형의 두명안(동구안)이 천연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옛날 주민들이 정착하기 훨씬 이전에 안도리 814-1번지(물건너)에 해적단 주둔지가 있어 앞산 꼭대기에 망루를 설치하고 수로를 지나가는 배를 습격, 약탈하였다.

해적질하고 두명안으로 들어오면 섬 밖에서는 아무리 보아도 발견할 수 없어 해적들이 본거지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두명안 입구는 배 한두 척이 겨우 드나들 수 있는 좁은 입구인데다가 숲으로 우거졌으며 보리수 가지가 엉클어져 사람이 건너다녔다고 한다. 지금도 해적단이 있었다는 주둔지 근처의 밭을 갈면 기와 파편이 나오며, 지하에 해적단이 보물을 숨겨놓았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2) 안도의 문학

조선 후기 안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조선말기의 문장가이자 정치가였던 김윤식의 시를 들 수 있다. 그는 사촌 형 회은(晦隱) 김완식(金完植, 1831~1863)이 1858년 12월부터 순천부사로 근무하던 때인 철종 11년(1860) 3월, 당시 26세의 나이에 순천부 지역을 유람하고 쓴 시들을 모아 『승평관집(昇平館集)』이라는 책으로 묶었다. 이 책에는 전라좌수영을 거쳐 돌산 방답진, 횡간도, 안도, 금오도 등을 유람하고 쓴 시들이 담겨 있는데, 안도하고 직접 연관되는 ‘안도의 여인(安島女)’과 ‘물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다(觀打魚)’ 두 편의 시를 실는다.



김윤식

물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다(觀打魚)

김윤식

세 척 배가 물 위를 가로 세로로 오가며,
큰 그물로 갯가 주위 바다를 에워싸는구나.
벳사람들은 밧줄을 메고 물가로 내려가고,
한 척의 배는 가로로 서서 홀로 뒤를 받치네.
잠시 후 그물을 드니 생선 비린내 물씬 나고,
옥빛 물보라 눈처럼 흩날리네.
배는 작는데 물고기는 많아 다 가져올 수 없으니,
술 마시고 북을 치며 잔치를 물리네.
섬사람들은 대개 물고기 중히 여기지 않으니,
내일 하동현으로 생선 팔러 가네.

三船縱橫來水面
大網截浦圍裹遍
百夫擔索下遠汀
一船橫立獨爲殿
須與舉網風吹腥
玉騰雪舞飛沫濺
舟小魚衆不勝收
飲酒擊鼓排賀宴
島人尋常不重魚
明日去賣河東縣

안도의 여인(安島女)

김윤식

아침에 방담진을 출발하여,
날이 저물어 안도리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바람과 파도가 거세 겨우 건너왔더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움으로 마음이 진정되지 않네.
안도의 여인에게 물어 보았다.
무엇 때문에 고달프게 성시를 떠났소?
이 외로운 섬에 와서 살면서,
외로움과 죽음이 두렵지 않소?

朝發防踏鎮
暮宿安島里
風波僅得涉
悸恐心未弛
借問安島女
何苦去城市
來此孤島居
而獨不畏死

안도 여인이 웃으며 말하기를,
나그네는 이치를 잘 모르다오.
성시에서는 살 수가 없답니다.
공역이 그칠 날이 없고,

安島女笑曰
客子不知理
城市不可居
供役無時已

부지런히 농사지어도 먹고 살 수 없으며,
날마다 채찍질을 당한답니다.
섬에 살아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일 년 내내 잔악하게 부리는 관리는 없답니다.

勤耕不自給
日日遭鞭箠
島居有正稅
終歲無虐使

성시에선 살 수가 없답니다.
자식들이 분수 넘치는 것을 배워서
고생해서 얻은 며칠의 양식이
한 켤레 신발값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섬에서는 진짜 소박하게 살 수 있어
평생 화려함을 알지 못합니다.

城市不可居
子弟學侈靡
辛苦數日糧
不及一兩履
島居守眞樸
生不識華美

성시에선 살 수가 없답니다.
자식들이 글을 배워
해마다 과거보러 한양에 간다면,
재산을 탕진하고도 그칠 줄 모른답니다.
섬에 사는 것이 어리석고 비루할지라도,
물에서 헤엄치는 것은 배울 수 있답니다.

城市不可居
子弟學書史
年年赴京舉
蕩貲不知止
島居全愚陋
惟看習泗水

성시에선 살 수 없답니다.
날마다 사방에서 거짓말이 돌고,
듣자하니 벼슬아치들의 집은
일 년에 다섯 번이나 이사를 간다고 하더군요.
섬에 살면 잡스러운 말이 없으니,
서로 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城市不可居
訖言日四起
聞道達官家
一年宅五徙
島居無雜言
斗酒相歡喜

성시에선 살 수가 없답니다.
담장에는 간악한 도둑이 살아
두려움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담을 넘나들어
문빗장을 걸어도 거짓말처럼 연답니다.
섬에서는 밤에도 문을 열어놓고 살 수 있으니,
늙은 삼살개는 편안히 귀를 드리운 채 지낸답니다.
산속에서도 살 수가 없답니다.
표범과 호랑이의 소굴이기 때문이지요.

城市不可居
牆壁棲奸宄
殺越瞽無畏
肩鏑啓詐詭
島居夜開戶
老豸安帖耳
山中不可居
豺虎之所倚

섬에서는 그런 근심이 없어	島居無此患
어두운 밤에도 개와 돼지를 풀어 놓지요.	昏夜放犬豕
강가에도 살 수가 없답니다.	川邊不可居
물에 떠내려가거나 잠겨서 땅을 잃는답니다.	漂沒失耘耔
섬에서는 항상 날씨와 물때만 살피면	島居候常潮
나아가고 물러날 때 방향을 잃지 않는답니다.	進退不失軌
상산에 올라 큰 사슴을 잡고,	上山捕麋鹿
숲 속에 들어가 화살로 꿩을 잡는답니다.	入林射春雉
썰물 때는 그물로 대구를 잡고,	潮退網魚鱉
서리에 떨어진 굴과 감을 거둔답니다.	霜落收橘柿
혼인으로 대를 이어가니,	婚嫁世相襲
집안이나 성씨를 구별할 필요가 없답니다.	不必辨族氏
물고기를 팔아 곡식과 바꾸니,	賣魚以換穀
쟁기질할 옷이 따로 필요하지 않답니다.	不必服耒耜
서재나 누각 같은 배 안에 있으면,	在舟如齋閣
무늬 아로새긴 비단 창문 부럽지 않답니다.	不羨窓疏綺
서로 바라볼 뿐 왕래하지 않지만,	相望無來往
어린이 치아는 쑥처럼 자란답니다.	幼艾至兒齒
평평한 육지에는 풍파가 많으니,	平陸多風波
큰 집과 풍족함을 믿을 수 있겠어요.	大廈安定恃
부귀란 옅은 연기와 같으니,	富貴如薄煙
높은 벼슬을 갈대풀처럼 여겨야 하겠지요.	公相葭葦視
나그네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어	客子無回辭
저문 물가에 쓸쓸히 서 있네.	悄然立暮溪

김윤식이 안도에 들러 그곳의 여성과 나눈 대화체 시 「안도의 여인(安島女)」에서는 조선 후기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남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던 선비는 안도라는 작은 섬에 살고 있는 여성에게 삼정의 문란 등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섬 생활이 비록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안빈낙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배운 셈이다.

다. 안도의 음식문화

안도에서는 쌀농사를 지었지만, 주로 보리, 고구마, 마늘이 대표적 작물로 생계유지에 주요 작물이었다. 수산물은 대부분 배낚시를 통해 고기를 잡아먹었으며, 정치망, 낭장망어선 3~4척이 함께 조업하였다. 그 밑에 딸린 인부들은 지역 사람들로 품삯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툇, 우무, 모자반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채취하여 해변에서 건조하여 판매하였다. 안도 당제를 지낼 때는 가사리 국을 올리며 주로 갯것한 해산물로 상을 차렸다고 한다. 당제 후에는 모든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바다 자갈밭에 상차림을 한 뒤에 가족의 무사 안녕과 고기잡이의 만선을 기원하는 용왕제를 지냈다.

안도의 음식문화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대표적인 음식은 백년손님밥상으로 안도에서 갯것한 해산물로 밥상을 차렸으며, 사위가 오면 섬의 특성상 암탉 대신 대접하는 장모의 사랑이 느껴지는 밥상이다.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하여 부재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숙회 정도로 상을 차렸으며, 안도 바다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밥상이다.



가사리된장국



백년손님밥상

라. 안도의 신앙

1) 당제

안도의 당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지성스럽게 모셔져 왔으나, 현재는 전승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안도 당제와 민속으로서 매구 및 줄다리기는 나경수 외 2명이 1994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 「남면 안도리 당제」¹⁹⁾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는 당제의 시간적 전개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복원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당제를 모시지 않은 시기가 길어지면서 당집은 허물어지고, 당산에 공원을 만들어 원형이 크게 훼손되었다.

(1) 제당(祭堂)과 제신(祭神)

안도에서 당제는 윗당 → 아랫당 → 4목제(四目祭) → 터줏제 → 헌식제 → 용제(龍祭)의 순서로 모셔진다. 예전에는 정월 열나흘 밤, 윗당제로부터 시작해 열이렛날 오전의 용제까지 3박 4일 간 계속되다가, 용제를 열엿새 날 오전으로 모셔 하루를 단축했었다.

윗당제는 마을 뒤쪽 나지막한 언덕 위에 후박나무가 군락을 이룬 숲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당집에서 모셨다. 당집은 단칸집이며, 그 주위로 둥글게 가정집처럼 돌담을 둘렀고, 붉은 벽돌로 만든 대문간에 쇠창살문을 달았으며 지붕은 함석을 덮었다. 당집 앞에 약 100여 평의 마당이 있어 윗당제는 당집과 마당에서 올린다.

이전의 당집이 낡아 1960년대 초에 새로 지었으며, 단칸집을 안팎으로 나누었다. 가운데쯤을 좌우로 나누어 벽을 만들고 문을 달았다. 입구에 문이 있고, 또 안쪽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 이중문 형태로, 내실과 외실로 나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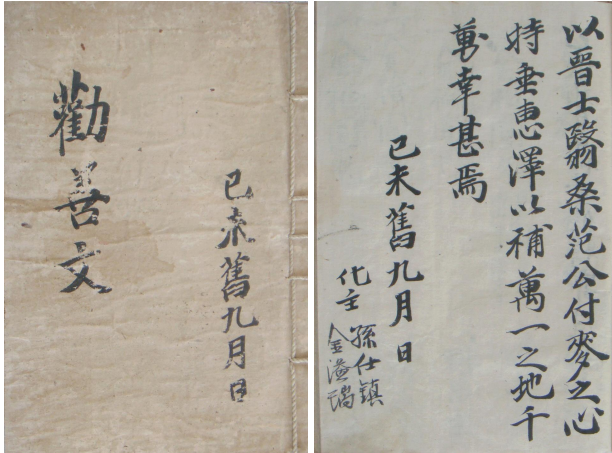
내실 좌우 벽과 외실 오른쪽 벽에는 각기 시령을 만들어 제상으로 활용하였다. 내실 전면에 좌우로 길게 줄의 매어 해마다 당제를 모실 때 15~20장의 한지를 걸었으며, 전에 있던 한지가 너무 많으면 당제를 모시면서 마당에 피운 장작불에 일부를 태웠다.

원래 당집 안에는 당신(堂神)께 바쳤던 것으로, 남자가 쓰는 갓과 담뱃대, 두루마기 등이 있었고, 여성용으로 색동저고리와 붉은 치마가 걸려 있었으나, 흙집이었던

19) 나경수·표인주·이경엽, 『남도민속연구』 제3집에 수록된 「남면 안도리 당제」, 남도민속학회, 1995, 251~301쪽 자료를 편집하고, 주민 면담을 통해 보완한 자료이다.

당집이 낡아 새롭게 지으면서 안에 두었던 물건들이 사라져 이들을 대신하게 된 것이 한지였다.

윗당을 새로 짓기 전의 건물은 1919년에 지어졌는데, 마을에 ‘권선문(勸善文)’이라는 책자에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1919년 윗당을 지으면서 그 필요성과 함께 기부자 명단을 적어 놓은 것으로, 상태는 좋은 편이고, 그 속에 당시 사용하고 받은 영수증 등이 끼워져 있다.



권선문

기부자 명단에는 일본인들의 이름도 많은데, 이곳에 살았던 일본인들이 많은 비용을 기부하였다. 권선문은 표지, 권문의 서문(勸文序), 기부안(寄附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권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夫靈堂者 其上居民 吉凶禍福之所 召也則可否懼哉 可否慎哉 是以春秋兩節 盡誠致齋 求福發願 執不然乎哉 然而本里祭堂 修輯歲久年 沈上雨傍風每多島 有神在之歎 故衆論朋與 然財力整竭上之築木之運力 不從心事難 逐志故沒廉仰陳望? 僉君子以晉士?桑范付麥之心 特垂惠澤以補 萬一之地千萬行甚焉

己未舊九月日

化主 孫仕鎮 金溢瑞

윗당집에서 약 20m 남쪽으로 ‘하당(下堂)’으로 불리는 아랫당집이 한 채 있다. 3칸 집이며 역시 붉은 벽돌에 함석지붕인데, 집을 바라보는 쪽으로 왼쪽 벽에 붙여 블록으로 창고와 목욕탕 겸용으로 쓸 헛간을 달아냈다. 오른쪽에 부엌, 가운데로 방 두 칸이 나란히 붙었다. 방 두 칸은 당제를 모실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이다. 이것은 윗당을 새로 지은 1960년대 초 함께 지은 집이다.

그전까지는 당제를 모실 제 관들이 자기 집에서 제물도 장만하고, 목욕재계도 하였으나, 마을에 흑시 곳은 일이 생기면 곤란을 겪기 때문에 따로 윗당 밑에 집을 지어 며칠간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했다. 기능이나 형태로 보면, 마치 사원(祠院)의 강당과 같은 구조이다. 이 제관들이 머물도록



철거 전 당집

한 집을 안도에서는 ‘하당’이라고 부르고 있어 마을 입구에 있는 ‘아랫당’과 이름이 충돌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점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불러온 터라 혼동이 될 수 있는 이름이면서도 문맥에 의해 구분하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다.

윗당에서 모셔지는 신격(神格)은 많은 편인데, 당집 내실 왼쪽 벽에 마을의 입도조(入島祖)로 알려진 정씨 부부가 모셔지고, 오른쪽 벽에는 정씨의 하녀, 그리고 바깥방 오른쪽 벽에는 성주가 각각 모셔진다. 정씨의 하녀와 성주의 신격은 바뀌어 말해지기도 하는데, 하녀라고도 하는 신격을 모시는 곳 천장 가까이에는 반 흡 정도의 쌀을 흰 종이에 싼 주머니 세 개를 걸어두고, 해마다 새로 만들어 맨다. 당집 밖으로 입구 오른쪽에 시멘트로 길이 2m, 높이 1m, 폭 50cm 가량의 긴상을 만들고, 그 뒤쪽에는 황토를 쌓아올린 흙더미가 있다. 그 흙은 해마다 현식을 위해 새로 한 지계씩 가져다 부어 놓은 것이 연륜이 쌓여 높아졌다.

이곳은 칠성을 모시는 곳으로, 칠성계 현식하는 흙단 바로 앞에 또 하나의 제단이 있어 그것을 중앙지신이라고 한다. 나지막하게 시멘트로 단을 만들어 놓았다. 당집 오른쪽에 2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또 흙을 두툼히 쌓고 그 위에 넓적한 돌을 놓은 곳이 있다. 그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산신, 왼쪽에 있는 것은 지신이다. 그러나 산신과 지신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말하는 사람도 있어 확실치는 않다. 또 하나는 정씨 할아버지를 모시던 마부라고도 한다.

윗당으로 들어가는 대문간 양쪽에 각각 하나씩의 제단이 있다. 이곳 역시 황토를 쌓았고, 그 위에 넓적한 돌을 놓았다. 동문장, 서문장으로 불리며, 당을 수호하는 신격으로 불린다.

그리고 당으로 들어서는 대문간 오른쪽에 막대기로 삼발이를 만들어 그 위에 간단히 제물을 올리는데, 이것을 ‘독자’ 또는 ‘독도’라고 하며, 안에 있는 잡귀를 몰아내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고도 하고, 잡귀를 위한 상으로도 생각하고 있다.

당을 두르고 있는 담 밖 왼쪽으로 타고 당집 뒤쪽에 이르면 수북하게 황토를 쌓고, 역시 그 위에 돌을 얹은 곳이 있는데, 이곳은 철룡을 모시는 곳이다.

아랫당은 마을 입구 선창가에 있으며, 두명안이 시작되는 곳이다. 배에서 내려 마을에 들어오는 길목 왼쪽에 후박나무, 귀목나무, 아카시아가 작은 숲을 이룬 곳이다. 여기에 조동훈 순찰비가 있으며, 예전에는 나무가 반대편 바닷가까지 가지가 뻗어 양쪽에서 뻗은 가지가 거의 맞붙어 있어 바다에서 보면 그곳에 만이 있는지 몰랐다고 한다.

도로 가까이에 있는 주위를 돌로 축대를 쌓고 시멘트를 발랐으며, 오를 수 있도록 계단도 만들어 두었다. 이곳에서 모셔지는 신격은 고선생과 지신이다. 또 4목신 중 하나인 두명목신도 여기에서 모시고 있다.

사목단(四目壇)은 마을을 중심으로 4방위에 설치했다. 꼭 동서남북의 방위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관념이 짙고, 또 마을에 들어오는 목이 허하면 안 되므로 그곳을 지킬 신격으로 4목신을 위한다고 한다.

4목제의 신격을 모시는 순서별로 보면, 아랫당에서 모시는 두명목, 마을 뒤쪽 바닷가와 가까운 빼그미목(빼금목), 상산 아래쪽의 학교 뒤 밭가에서 모시는 이야포목, 그리고 마을 서쪽으로 두명안 건너편에 있는 목너매목 등 4곳인데, 각각 3상씩 차려 모신다.

터줏대감을 모시는 제단은 아랫당에서 두명안의 갯길을 따라 마을로 들어가는 길쪽에 있다. 지금은 그곳에 집을 지어 개인집 정원에 제단이 있으며, 황토를 쌓고 돌을 얹어 놓았다. 헌식 터는 바로 그 집 담 밖에 있는데, 황토가 쌓인 단 주위에 돌로 직경 3m 정도의 축대를 쌓았다. 이곳은 보름날 낮에 제관들이 제상을 따로 차려 제사하는 곳이다. 마을에서 차린 4상만 놓고, 헌식과 잔 밥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만, 예전에는 해난 사고 등으로 물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집에서 상을 하나씩 내와서 그 주위에 차렸기 때문에 더 많은 상이 놓였다. 바다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사자(水死者)가 많았던 이 마을은 마을 상보다 개인상이 훨씬 많았다.

용제는 4목단 가운데 하나인 빼그미목에서 지낸다. 넓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다. 여기에 마을에서 제관들이 준비한 제상 5개를 차려 중앙 용왕과 사해용왕을 위해 제를 모신다. 여기에는 2m 정도 되는 생대나무에 70cm 크기의 백지를 달아 ‘황제용왕신(皇帝龍王神)’, ‘청제용왕신(靑帝龍王神)’, ‘백제용왕신(白帝龍王神)’, ‘적제용왕신(赤帝龍王神)’, ‘흑제용왕신(黑帝龍王神)’이라고 써서 바닷가에 세우고, 그 앞에 상을 차린다.

이때는 바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개인 집에서 상을 차려 내려와 마을 상 옆에 놓는다. 특히,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열심이어서 반드시 상을 내왔다고 한다. 개인이 차리는 상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 자기 성의껏 집안에서 조상을 모시는 차례상처럼 차린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상을 차리는 풍속이 없어졌다. 또한 예전에는 열이렛날 오전에 용제를 모셨으나, 하루를 앞당겨 열엿새날 오전에 지낸다.

안도마을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문 만큼 많은 신격과 신당, 신단이 있는 곳이다. 윗당, 아랫당, 사목당, 터줏단, 헌식터, 용제단 등으로 구분되며, 터줏단을 제외하고 많은 신격이 함께 모셔지고 있어서, 메의 수효로 모셔지는 신격을 계산한다면, 윗당 15위, 아랫당 2위, 사목당 12위, 터주 1위, 헌식 3위, 용제 5위 등 이들을 합하면 모두 38위의 신격을 모시는 셈이다.

(2) 당제의 준비

■ 제관의 선정과 금기 사항

당제를 준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월 초사흘날 제관을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리사무소에서 마을의 큰 어르신(洞首)을 중심으로 유지 어른들과 이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모여 그해 당제를 맡아 모실 당주, 치성원, 주비, 잡부 등을 선정한다. 당주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며, 치성원은 집사의 역할을 맡는 사람으로 1명이다. 주비는 청소도 하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며, 잡부는 주로 당샘에서 당주 집으로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이다.

주비와 잡부는 사정에 따라 1명 또는 2명씩 뽑는데, 잡부의 역할인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뽑지 않는다. 파이프를 연결하여 마을 샘에서 물을 끌어 쓰기 때문이지만, 제수를 만드는 물은 반드시 당샘에서 길어 온다. 예전에 당주가 문밖출입을 하다 곁은 사람을 만날까 봐서 잡부로 하여금 물을 길어 나르게 했던 것이다. 이들 외에도 매구를 칠 사람을 따로 뽑는데, 이들도 깨끗한 사람들만 가린다. 매구를 치는 사람을 ‘치배꾼’이라고 하며, 15명이나 17명과 같이 반드시 홀수로 구성한다.

제를 모실 이러한 사람들은 집안에 유고가 없이 깨끗한 사람으로 정한다. 특히, 당주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가까지도 가린다. 양가에서 산고가 들었다든지, 또는 초상이 나거나 하면 안 된다. 또 정월 들어 개고기를 먹은 사람도 안 되며, 심하게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육고기를 먹은 사람도 제외시켰다고 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달거리까지도 가린다. 당제 기간에 당주로 선정된 사람의 부인이 달거리가 예상되면 본인이 사양을 하게 되고, 또 항에 올라갔다가도 달거리가 시작되면 내려와야 한다.

안도마을에서 당제를 모시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제관을 선정하는 일이다. 금기 기간이 길고, 철저하며, 더구나 과거에 당제를 모셨던 사람의 신상이 그간 좋지 못했다는 말이 전해 오고 있어 누가 맡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당제를 모신 사람 중에 물에서 죽거나, 사고로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마을에서 뽑아도 거절하는 사람이 많고, 또 마을 유지나 부자들은 극구 피하기 때문에 사람을 고르는 일이 어렵다. 따라서 외지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상당 입구

당숲

마을에서 당제를 치르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대부분이 제관들과 매구꾼들에 대한 사례비로 계산된다. 사례비는 거의 인건비로, 높은 인건비를 받아야 겨우 응낙할 정도로 제관이 되는 것을 꺼린다. 한 해에는 모실 사람을 못 구해 겨우 사흘 전에 골라 제를 모신 적도 있었다고 한다. 만일 당주로 선정된 사람이 처음 그 일을 맡게 되었다면 전에 당제를 모셔본 사람을 찾아가 그 전체의 준비 과정과 차례를 물어 사전 지식을 쌓았다고 한다.

1960년대 초, 지금의 아랫당을 짓기 전에는 당주로 선정된 사람은 그날부터 대문 앞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아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고 집안에만 머물러 있다가 당제를 모시는 날에만 당에 올랐다. 이후에는 아랫당이 있어 그곳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준비했다. 전에는 초닷셋날 올라갔으나, 바뀌어 초아흐렛날 올랐다. 이때 당주와 그 부인은 물론 치성원으로 뽑힌 사람도 함께 오른다. 아랫당에 두 개의 방이 있는데, 부엌이 딸린 아랫방에서 당주 부부가 머물고, 윗방에서 치성원이 머문다. 그 사이에 마을과의 연락은 주비가 맡아서 한다.



당림 체육시설

아랫당에 오르는 날부터 제관들은 철저한 금기를 지킨다. 올라가는 대로 곧바로 목욕재계하고 나서 물을 길어와 제사 때 쓸 술부터 앉힌다. 제주는 막걸리로, 큰 항아리에 담아 제사 때 쓰고, 나머지는 매구 치배꾼들과 당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한다.

제주를 앉히고 나면 아랫당을 깨끗이 청소하여 며칠간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위와 당집 입구 등에 원새끼를 꼬아 금줄도 친다. 당에 오르는 날부터는 소변을 보면 손발을 씻어야 하고, 대변을 보면 목욕을 해야 한다. 그것도 찬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스러워 당제 기간에 거의 먹지 않고 지냈다고 한다. 대변을 보면 반드시 옷을 갈아 입어야 하지만, 비누를 다루거나 빨래를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여러 벌의 옷을 준비해 간다. 그 사이에 부부 생활은 절대 금한다.

제관들은 당제를 모시기 전뿐만 아니라 모시고 나서도 6개월 동안은 매우 조심한다. 나쁜 곳이든 좋은 곳이든 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초상난 집, 산고 든 집, 잔칫집 등에 가지 않는다. 환갑잔치나 결혼식 등도 모두 여기에 해당하며, 비록 가까운 친척집의 일이라도 피한다. 또한 개고기와 같은 육식은 피하는데, 예전의 봄과 가을로 제를 모실 때 6개월을 조심하면, 다음 제관은 9개월을 조심하여 6개월 단위의 사이클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마을을 위해서 일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고 한다.

금기는 제관에게 부여된 의무로서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어 비교적 자유롭지만, 마냥 그런 것은 아니다. 전에는 마을의 머슴이 제관으로 뽑힌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나서 곧바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내용을 외치고 다녀 마을사람들에게도 알렸다. 집안에 유고가 있는 사람들이 제관들을 만나서도 안 되고, 그들의 집을 다녀가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유고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은 정초부터 당제가 모셔지기까지는 마을을 돌아다니기를 꺼리게 된다. 특히, 정초에 출산이 예정되면 외지로 나간다.

그러나 초상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당제를 모시기 전에 마을에 초상이 나면 초상도 치루고 당제도 올린다. 다만 초상에 관여한 사람들은 조문을 다녀온 사람일지라도 당제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관뿐만 아니라 매구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초에 상을 당한 집은 가능하면 조용히 상을 치른다. 당제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상여가 마을을 떠날 때

반드시 당을 향하여 인사를 하고 간다고 한다.

당제를 모시기 전 주비나 잡부들은 윗당과 아랫당, 그리고 당샘 등에 금줄을 친다. 그리고 황토를 파다가 필요한 곳에 일일이 가져다 놓는다. 황토가 필요한 곳은 당집 안을 제외하고 제가 모셔지는 전부이다. 제를 모시는 곳마다 돌로 약간 높게 축대를 쌓은 곳이 많은데, 그 위에 황토를 가져다 붓는다. 이것은 매년 계속되는 일로, 작은 무덤만큼 황토가 쌓인 곳도 있었다. 특히, 헌식 터의 경우는 큰 가로로 돌 축대를 높이 쌓았을 뿐만 아니라 봉분만큼 황토가 쌓였다.

황토더미 위에는 반드시 넓적한 돌을 하나 없어 놓았는데, 그것은 제상에 차렸던 제수를 땅을 파고 묻은 뒤 그 위를 덜기 위해 준비해 둔 것이다. 그 해 당제를 모시기 위해 친 금줄은 걷지 않고 그대로 둔다. 다음 해 당제를 모실 때쯤 되면 거의 없어지지만,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청소할 때 걷어서 태운다.

당제를 준비하는 기간에 주비가 하는 일 중 하나는 제관들과 더불어 당을 청소하면서 땀감을 마련하는 일이다. 담 안쪽으로 당집 주위가 넓어 그곳에 자란 풀이 사람의 키를 넘는다. 별초를 하듯 풀을 베어내 한쪽에 쌓아 두고, 도 당산 주위를 다니면서 부러진 나뭇가지나 죽은 나무 등을 베어와 당집 마당 왼쪽에 쌓아 둔다. 하룻밤 동안 내내 피울 수 있을 정도의 검불과 장작을 준비한다. 이 나무들은 당제를 모시는 날 방 내내 당집 마당에서 불을 피울 땀감이다.

■ 제비(祭費)

예전에는 제비를 집집마다 돈(호구전, 戶口錢)을 걷어 사용했으나, 이후 마을 공동 기금으로 한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당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사례비이고, 나머지는 4개의 자연 마을에 대한 보조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안도에는 5개의 자연 마을이 있는데, 예전에는 함께 당제를 모셨으나, 따로 분리하여 모시기 때문에 큰 마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명목으로 쌀 한 가마니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며, 모든 비용은 이장이 관리한다.

장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구입할 물품 목록을 만든다. 이에 따른 예산을 세워 음력 13일쯤 여수로 장을 보러 간다. 필요한 것이 많아 혼자서는 다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장이 유고가 없는 한두 명을 데리고

가서 장을 본다. 제에 필요한 제수감은 물론, 부족한 풍물 기구, 치배
꾼을 먹일 만큼의 여러 가지 음식물을 장만한다.

부족한 제기도 사는데, 이 마을에는 아랫당에 제기를 보관하였다. 제
기는 자기류와 늦제기가 많고, 사기류도 더러 섞여 있다. 늦제기는 예
전에 어떤 사람이 기증했다고 전하며, 자기류에는 청자와 분청사기도
섞여 있어 안도의 당제가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장에서 물건을 살 때 값은 깎지 않는데, 값을 깎으면 공이 되니 앓는
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제수감으로 꽃감, 복어, 사과, 쌀, 콩나물 등을
산다. 쌀은 한 가마니를 사며, 메, 떡, 식사용으로 한다. 명태 등의 부
식도 함께 사서 치배꾼들의 먹을 것으로 준비하지만, 절대 육류는 사
는 일이 없다. 항상 제수감보다는 치배꾼들 먹을 음식이 더 많다. 예
전에는 종이를 사다가 음력 14일, 동각에 모여 고깔과 가면 등을 만
들었으나, 대부분 사다가 쓰게 되었다. 마을에 나무로 깎아 만든 탈과
바가지로 만든 탈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해지지 않는다.

이장이 장을 보러 간 날 여수에서 배가 도착하면 잡일을 맡은 사람이
선창에 나가 받아온다. 음식류는 모두 아랫당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리사무소로 옮긴다. 선창에서 짐을 받아 지계에 지면 아무리 무겁고,
힘이 부쳐도 당집에 도착할 때까지 땅에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으
로 생각해 단번에 쉬지 않고 올랐다고 한다.

■ 제수(祭需)의 준비

14일이 되면 그날부터 당제를 모실 제수와 치배꾼들이 먹을 음식물
등을 준비한다. 제수를 만들고, 메를 지을 물은 당샘에서 길러다 쓴
다. 제수를 만들 물을 길러갈 때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간다. 물을 길
러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돌아와 다시 목욕을 하고 간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나면 그 물을 버리고 다시 목욕한 후 새로 물을
길러 온다.

길러 온 물로 제기를 씻고, 제수감도 손질한다. 제수는 당주의 부인이
만들며, 반드시 입을 가리고 침이 음식에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말도
하지 않는다. 제상에 올리는 것은 메, 콩나물국, 떡, 복어, 꽃감, 사과,
제주뽕으로 어느 상이나 같다. 이 가운데 조리를 해야 하는 것은 콩나물국

뿐이다. 그러나 그나마 국으로 끓이고, 간을 하지 않고 맛을 보지도 않는다. 북어는 도막을 쳐서 마른 그대로 상에 올린다.

예전에는 아랫당에서 제사용 떡을 만들었으나, 이후 방앗간에서 만들어 왔다. 아랫당 부엌 앞에는 예전에 떡을 만들 때 썼던 절구와 절구공이 함께 그대로 놓여 있었다. 오후가 되면서 술을 걸러 제주를 마련해 두고, 또 치배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따로 준비한다. 메는 큰 가마솥에서 짓는다.

당주가 자는 방에는 시렁이 있는데, 그 위에 대나무로 만든 석작을 여러 개 올려놓았다. 여러 곳에서 제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각각 그곳에서 필요한 제수를 따로 담아 두기 위한 것들이다. 제를 모실 때가 되면 거기에 준비해 둔 제수, 새로 지은 메와 국을 더해 내갔다.

안도마을에서는 대보름 차례를 14일 저녁 해질 무렵에 모신다. 일찍 모시고 나서 집안에 들어앉아 있어야 제관들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온 것이다. 아랫당이 없었을 때, 당주가 자기 집에서 당에 제를 모시러 가는 길에 사람을 만나면 안 되므로 근신하기 위해 그랬다. 예전에는 저녁 무렵이 되면 집에서 기르는 개도 묶어두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제관들이 당집에 오르는 도중 개를 만나면 다시 돌아와 목욕재계를 하고 나서 또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되면 부정을 탈까봐 조심했던 것이다. 당주로 선정된 사람들은 아랫당에 있어야 하므로 집안 조상께 올리는 대보름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

(3) 당제의 진행

14일 낮에 치배꾼들이 모여 상산에 있는 당샘에 올라가 샘굿을 치고, 또 마을에서 사용하는 샘에 가서 역시 샘굿을 친다. 이때 상쇠가 물이 잘 나오라고 다음과 같은 구축(口祝)을 했다.

“물 주세 물 주세 새미각씨 물 주세 쿵쿵 솟아라 쿵쿵 솟아라”

당제가 모두 끝나고 각 집에서 매구치는 것까지 마치고 나면 판굿을 치고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는데, 판굿을 치기 전에도 상산의 당샘과 마을 샘에 가서 다시 한 번 샘굿을 쳤다. 샘굿을 치고 나서 치배꾼들은

마을에서 원하는 집이 있으면 매구를 쳐주기도 하고, 리사무소 앞에서 놀기도 한다. 집안에 유고가 있는 사람은 매구를 칠 수 없다. 예전에 마을에 2인용 목욕탕이 있어 매구꾼들은 두 사람씩 그곳에 들어가 목욕을 했는데, 목욕을 해야만 매구를 칠 수 있었다고 한다.

진설은 오후 5시 반쯤부터 시작하여 약 30분 정도 걸리며, 6시 정도가 되면 윗당에서 여러 신격에 대한 제를 모신다. 당주와 치성원이 진설을 맡고, 당주 부인은 뒤를 거든다.

입도조 정씨 부부, 하녀, 성주의 상은 당집 안에 있다. 마치 시령을 올린 듯 당집 안에는 제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곳에 낮은 촛대만 올려놓았다가 저녁에 진설을 한다. 정씨 부부상 위에는 '안도를 개척하신 조상 정씨 신위(安湖開拓祖鄭氏神位)'라고 쓴 지방을 위패 상자에 붙여 놓았다.

그리고 하녀상 위 천장 가까이에선 쌀 주머니를 세 개 달아 놓았는데, 이것은 당주 부인이 13일 날 만들어 걸어둔 것이다. 1년이 지나고 나면 짐승들이 먹는지 쌀봉지가 없어져 해마다 새로 만들어졌다.

윗당에서 차리는 상은 정씨 부부, 하녀, 칠성, 중앙 지신, 지신, 산신, 동문장, 서문장, 독도, 철룡 등이다. 제수는 매우 간단해서 메, 콩나물국, 꽃감, 사과, 떡, 제주뿐이다.

특이한 점으로는 칠성상 위에는 7그릇의 메를 올리면서, 또 7개의 참기름 종지기에 심지를 달아 기름불을 켜 놓았다. 칠성상 앞에는 조그마한 상을 놓고 그 위에 다른 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제물을 차려 놓았다.

감성돔, 큰 새우(大蝦), 낙지, 홍합 등이 올랐는데, 이 상은 마을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배를 가졌거나 어업을 하는 사람 중에 성의가 있는 분이 생선을 칠성 앞에 올려 어장이 잘 되기를 빈다고 한다. 예전에는 굴비를 많이 올렸으나, 조기가 잡히지 않은 이후부터 다른 것을 올렸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신 중에서도 주신은 입도조인 정씨 할아버지이지만, 가장 정성을 드리는 신은 칠성신이다. 그 이유는 어업에 칠성신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의가 있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올라와 이 칠성상 앞에서 절을 올리고 돈을 놓기도 했다.

제의 차례는 간단해서 각 상 앞에 당주와 치성원이 나란히 서서 재배를

올린 뒤, 각자 1매씩 소지를 올리면서 치성원이 구축을 한다. 당주도 치성원과 따로 구축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치성원이 맡는다. 소지와 구축이 끝나면 다시 재배를 올리고 나서 끝내는데, 이런 방식으로 윗당 10곳에 제를 모시며, 주요 구축은 다음과 같다.

“농사와 어업이 잘되고, 해조류도 잘 자라며, 짐승 한 마리라도 병 없이 길러지기를 빕니다.”

“칠성님께 아뢰니다. 금년도 정월대보름 제사를 산해진미를 차려 이렇게 여러 안도 사람들이 성의를 갖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많이 드시고 안도 사람들 무병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농사도 잘 되고, 또 짐승 한 마리라도 병 없이 잘 길러주시고, 어장도 잘 되게 해주시며 전복과 해삼 막 꼬집어다 안도 전체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씨 할아버지 우리 안도 주민을 늘 돌보아 주시기를 이렇게 소지를 빌어 올립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셔준 덕택에 이렇게 소지까지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셔주십시오.”

“성주님 금년에도 예전과 같이 안도 주민들 다 건강을 이렇게 빌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6시 40분, 떠다 놓았던 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당집 안으로 들어가 소지를 올리는데, 방법은 전과 같으며, 소지하면서 하는 구축 내용도 비슷하다. 당집 안과 칠성상 앞에서 두 번씩 절과 소지를 올리고 나머지 신들에 대해서는 처음 한 번만 소지를 올리며 그 뒤로는 끝날 즈음 헌식하는 것으로 마쳤다.

7시부터 동각 앞에서 매구를 치다가 9시쯤 윗당에서 제를 다 모셨다는 전갈을 받으면 매구꾼들이 윗당으로 오른다. 매구꾼들이 윗당으로 가는 도중 아랫당에 도착해서 원진을 짜고 매구를 치다가 윗당을 향해 목례로 3번 절을 올린 뒤 윗당 대문간으로 이동한다. 문곳을 치다가 당 마당에서 매구를 치며, 산신상과 지신상 차례로 목례를 올린 뒤 다시 매구를 친다.

9시 30분부터 잠시 쉬는데 당주와 치성원은 칠성단 앞에 깔아 놓은 돛자리에 앉아 곳을 구경한다. 상쇠의 지시에 따라 휴식 시간에 들어가면 동네 아이들이 치배꾼들의 악기를 가지고 놀았다.

치배꾼 가운데 한 사람이 아이들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시범을 보이고,

다시 치게 하는 것을 반복한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당제에 와서 치배
꾼들이 쉬는 사이 굿물을 들고 쳐보면서 연습을 했다고 한다. 대부분
마을에서 굿물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매구를 배
웠다고 한다. 매구를 치는 곳은 아주 자연스러운 매구의 학습장이요,
전승장이었다.

상당에서 매구가 올리면 마을에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올라와 함
께 어울려 놀기도 하고, 제상 앞에서 절을 올리기도 했다. 당집 안에는
제를 모시는 당주와 치성원만 들어갈 수 있었으나, 마을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도 당제를 배워야 한다고 한 뒤부터 개방되었다고 한다.

윗당에서 매구 소리가 들리면 마을 유지, 지도자, 특별히 참여하고 싶
은 사람들, 함께 놀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객지에서 살면서 마을 사
람들이 당제를 모시느라 수고하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 특별히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10시가 넘으면 치배꾼들이 휴식을 끝내고 매구를 치기 시작하고, 11
시 30분 당주와 치성원이 당집 대문간 좌우에 차려두었던 제상 앞에
가서 재배를 하고, 소지를 올린 후 상 위에 놓였던 제물 모두를 미리
준비한 흰 베에 싣는다. 주비가 양쪽에 따로 쌓아둔 황토를 약간 파낸
뒤, 그것을 묻고 흙을 덮고 그 위에 돌을 얹는데 상은 그대로 두었다.
자정이 되면 당주 부인이 준비한 떡국을 내오는데, 매구꾼은 물론 그
곳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12시 35분, 당주와 치
성원이 세 번째로 칠성신께 재배한 뒤, 소지한다.

새벽 3시, 당주 부인이 가사리국을 낸다. 가사리는 홍조류에 속하는
해초로 예전부터 새벽에는 꼭 가사리국을 끓여 내 왔다고 한다. 술을
마신 뒤 가사리국을 먹으면 속이 편안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밤새 찬
서리를 맞으면서 놀고 술도 많이 마시기 때문에 해장국 겸 밤참으로
가사리국을 끓여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새벽 4시, 당주와 치성원이 칠성신께 네 번째 소지를 올리고, 4시 15
분, 당주는 준비된 대바구니에 아랫당으로 가지고 갈 제물을 지계에
 옮겨 싣고 나서 칠성상만 놓아두고 나머지 상들은 모두 치운다.

4시 30분이 되면 당주와 당주 부인, 그리고 치성원과 주비가 아랫당으로
내려간다. 주비는 지계에 제물을 지고 가는데, 제관 일행이 아랫당으
로 내려가는 사이 치배꾼들은 계속 윗당에서 굿을 친다.

5시, 치배꾼들이 아랫당에 도착하여 굿을 치다가 바다 쪽을 향하여 일렬로 서서 상쇠의 신호에 따라 목례로 세 번 절을 하고 다시 굿을 친다. 먼저, 고선생상을 차려 모시고, 두 번째는 지신상, 그리고 끝으로 4목 가운데 첫 번째인 두명목신께 제를 모신다.

먼저 아랫당의 평평한 곳에서 한 상을 차려 들고 가능한 북쪽 끝으로 가서 상을 놓고 당주와 치성원이 재배한 뒤 소지를 한다. 소지를 하면서 치성원이 다음과 같이 구축을 한다.

“여그여 어구 선생한테 알려드립니다. 금년 00년도 정월대보름 제사를 또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왜고니 향시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고선생님한테 여지없이 또 금년에서 빠짐없이 산해진미와 00 제물을 갖다가 이렇게 모셔드립니다. 향시 들어간 배, 나간 배 보살펴줘서 감사한 뜻으로 이렇게 올려 지냅니다. 그리고 나간 배, 빈 배는 나가더라도 들은 배는 먼 어장이라도 한 배씩 신고 돌아오게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든지 나갈 때는 물론 빈 배로 나가고 들어올 때는 고기도 한 배씩 신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점지해 주십시오.”

치성원은 구축을 하고 나서 목소리를 바꾸어 마치 고선생이 그리하는 것처럼 빌었던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대답을 한다.

“어이 염려말고 그렇게 신고 들어 올 것이네.”

고선생 상 앞에서 소지를 하고, 다시 재배한 뒤 제상에 놓였던 것을 한지에 싸서 땅에 묻어 헌식을 한다.

다음으로 아랫당 가운데 쯤 와서 지신께도 한 상을 차려 올리고, 재배 - 소지 - 구축 - 재배 - 헌식의 순으로 제를 올린다. 지신께 빈 구축은 다음과 같다.

“전복, 소라, 해삼 산더미같이 밀려 주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빌고, 또 하나 늘 부탁드렸던 대로 우리 군민들 절대로 어딜 가든지, 도에 가나 산에 가나 사고 없이 주위를 잘 살피주시고, 또 비행기를 타나 자동차를 타나, 배를 타나 사고 없이 해 주시기를 늘 살피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시 27분, 고선생과 지신을 모신 뒤, 장소를 약간 앞쪽으로 옮겨 바다 쪽을 향해 상 3개를 나란히 차린다. 그리고 그 상 앞에는 백지를 여러 장

길게 깎는다. 여기에 차린 3상은 두명목신께 올리는 것이다. 다른 4목신께도 3상씩 차린다.

두명목 상 앞에 당주와 치성원이 나란히 서서 재배 - 소지 - 구축 - 재배의 순으로 제를 모신다. 이러한 사이 매구꾼들은 계속 매구를 친다. 제가 끝나면 상 위의 제물을 한지에 싸서 묻어 헌식을 하는데, 이미 가져다 놓 황토에 묻으며, 헌식 뒤에는 돌을 눌러 놓았다.

5시 30분, 소지를 한 뒤, 큰 양동이에 정화수와 술을 따라 붓고, 거기에 따로 준비해 온 음식들을 부어 섞는다. 제물 가운데 사과는 숟가락으로 대충 으개는 듯 마는 듯 시늉만 낸다. '뒷전' 또는 '뒷전밥'을 만든 뒤, 제상 앞에 늘어 놓았던 한지 위에 골고루 뿌렸다.

여기 모인 임자 없는 귀신에게 주는 밥으로, 4목신께 제를 드리는 곳에서는 모두 이렇게 한다. 다만 다른 곳에서는 한지를 까는 대신 사목신단 주변에 양동이에 섞은 음식물을 골고루 뿌렸다.

아랫당에서의 제가 끝나면 제관 일행을 앞세우고 치배꾼들이 매구를 치며 마을로 향한다. 당주 일행은 마을을 거쳐 다시 윗당으로 올라가고, 치배꾼들은 동이 틀 때까지 집에 돌아가 한숨씩 눈을 붙이고 다시 나온다.

7시 30분, 각자 집으로 돌아간 치배꾼들을 모으기 위해 윗당에서 징을 울린다. 8시에 4목당으로 가기 위해 제물을 챙겨 주비가 지계에 신고, 당주 일행과 보리밭을 지나 빼그미목으로 출발한다. 한참 뒤에 매구꾼들이 뒤를 따라 내려온다. 마을로 돌아서 갈 수 있으나, 도중에 낯은 사람을 만날까 싶어 일부러 보리밭을 질러 내려갔다.

당주와 치성원이 진설하는 동안 매구꾼들이 도착하여 둥글게 원을 그리는 원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굿을 치다 상쪽을 향하여 일렬로 늘어서서 목례로 세 번 인사하고, 다시 굿을 계속 친다.

당주와 치성원은 상 앞에서 재배 - 소지 - 구축 - 재배 - 헌식의 순서로 제를 모신 뒤 뒷전을 주변에 뿌린다. 빼그미목에 이어 이야포목과 목너매목의 제를 모시고 나면 당주 일행과 매구꾼들을 마중 나온 배에 오른다.

배는 두명안을 가로질러 마을에 당주 일행을 내려주고, 매구꾼을 태우고 두명안을 한 바퀴 돈다. 배로 건너는 길은 약 200m 정도이지만,

길을 따라 걸어서 마을로 오게 되면 약 1.5km가 넘는 길이다.

9시 35분 쯤 당주 일행은 개인집 안에 있는 터줏대감 앞에 도착하여 제상 3개를 차린다. 배를 타고 갔던 매구꾼들이 도착하면 제를 모시는데, 4목단과 같은 형식이다. 다만, 터줏대감의 제를 모시고 나서 뒷전을 할 때, 그 속에 있는 북어는 모두 머리만 활용했다.

9시 40분, 터줏대감께 올린 제까지 모두 끝나면 당주 일행은 소지품을 챙겨 다시 윗당으로 올라가고, 매구꾼들은 뒤를 따르다가 마을로 들어가 그때부터 각 집을 돌며 매구를 쳤다.

윗당에 올랐던 당주 일행은 그곳에서 쉬다가 오후에 헌식을 하기 위해 다시 제물을 가지고 헌식 터로 내려온다.

물에서 죽은 사람이나 주인 없는 귀신, 도깨비, 잡귀 등에 올리는 헌식 제는 15일 저녁나절 헌식 터에서 한다. 헌식 터는 터줏대감이 있는 개인집 담장 바깥쪽에 붙어 있다. 예전에는 물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집에서 개인별로 상을 내와서 헌식단 앞에 마을 상과 함께 놓았다고 한다. 헌식제 때에는 마을 사람 누구나 참여하여 매구를 치고 놀았다.

바다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뜻에서 올리는 용제(龍祭)는 16일 오전 9시 쯤 빼그미목에서 한다. 중앙 용왕과 사해용왕을 불러들이고, 깃발을 내걸으며, 이들에게 올리는 다섯 상을 차린다. 예전에는 바닷일을 하는 사람이나 배를 가진 사람들이 개인집에서 한 상씩 내오기 때문에 빼그미목 양쪽까지 많은 상을 두세 줄 늘어 차렸다고 한다.

용제를 지내고 나면 마을에서 모시는 당제는 모두 끝난다. 당주 일행도 아랫당에서 나와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그 사이에 각 집을 돌며 며칠씩 매구를 치고, 예전에는 줄다리기도 했다고 한다.

매구나 줄다리기는 용제를 넘겨서 하기도 하는데, 이들이 끝나면 판굿을 펼친다. 판굿은 치배꾼들이 동각 앞마당에 모여 여러 가지 놀이를 하기도 하고, 개인 기예를 뽐내기도 하는 굿놀이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을 하고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

판굿은 당제를 마무리 하는 기능도 가졌다. 판굿을 끝으로 하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동안 매구소리가 마을을 울릴 때, 마음도 들뜨고, 마을도 들떠 있는 제의 기간이었으나, 판굿을 끝으로 모든 제의적인 행사는 마치게 되었다.

(4) 당제의 결산

판긋까지 끝나고 나면 이장을 중심으로 하여 마을의 책임자들이 아랫당에 모여 결산을 했다. 전체 마을 자금의 회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당제에 소요된 금액을 합산하고, 또 당주 부부, 치성원, 주비, 그리고 치배꾼들의 수고비를 정했다.

1990년대에는 하루에 일이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상쇠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해 주었다. 치배꾼들에게 마을에서 주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적은 돈은 아니었다.

매구를 치게 되면 각 집에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내놓았다. 또 거기에다가 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들도 배에서 굶을 쳐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때도 선주가 돈을 내놓았다. 그것을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상쇠가 맡아 처리하며, 그 중 일부를 마을에 회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치배꾼들이 나누었다.

이틀 정도 매구를 치고 나면 대개 개인별로 5만 여원의 돈이 돌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치배꾼들은 돈 보다 마을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때문에 성가시고 괴롭지만 참여했다고 한다.

제비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나가고 그 외에 제물을 장만하는 돈이나 제에 필요한 물건, 즉 상한 악기를 새로 장만하는 것, 고깔이나 복색 등을 새로이 장만할 때 등 여기저기 돈이 들었다.

특히, 풍물의 경우는 마을의 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을 위한 당제를 모시다가 상하게 되면 마을 자금에서 새로 구했다. 그러나 매구를 치다가 악기가 상하게 되면 치배꾼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매구를 쳐서 번 돈으로 샀다.

(5) 당제가 미친 영향

예전에 안도마을에서는 당제를 모심으로 해서 마을과 가정이 모두 평온하고, 또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믿었다. 또 제당에 대한 외경심이 남달라 평소에도 당집이 있는 근처에 가기를 꺼리고, 또 제를 모실 때 안에 들어가려면 옷깃을 여밀 정도였으며, 당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1860년, 당주가 당제를 모시면서 마을을 내려다보니 안개가 마을을

자욱이 덮고 있는데, 한 집만이 밝게 보였다고 한다. 그해 안도에서 불이 나 안개 속에서 보이던 집만을 남기고 다 타버렸다고 하는데, 이를 '경신(庚申) 대화재'라고 한다.

당제를 모실 때 윗당에서 마을의 신수를 보기도 하지만 개인이 일부러 도깨비불을 보기 위해 윗당이나 그 주위에 오르기도 했다. 바다쪽을 보면 밤에 도깨비불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어떤 곳에서 한꺼번에 없어지는데, 그곳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물을 치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도깨비불이 사라진 곳을 '돈바닥'이라고 했는데, 곧 어장이 잘 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어떤 스님이 마을을 지나간 적이 있었다. 스님이 마을을 돌아본 뒤,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4목당에 소금을 묻으면 불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어 4곳에 흙을 파고 소금을 묻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예전에 보리밭에 감부기병과 해충이 번져 농사를 망칠 정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당제를 잘 못 모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여 낱을 새로 받아 당제를 모셨더니 병과 해충이 없어졌다고 전한다.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본래 교회는 당집 옆에다 지으려고 했다. 그런데 하루는 마을 노인의 꿈에 당할아버지가 나타나 대뜸 “나는 금오도로 갈란다.”라고 했다. 그래서 마을에 이 사실을 알리고 당산 옆에 교회를 못 세우게 했다.

마을의 상수도 탱크를 비롯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당집 옆에 신사를 세우려 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학교 뒤쪽에 세웠다고 한다.

당산에 숲이 우거져 있어 부러진 나뭇가지나 죽은 나무 등 썰감이 많지만, 개인이 그것을 주어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큰 재앙을 당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무들은 당제를 모실 때 모아서 밤새 불을 피웠다.

(6) 안도 당제의 특징과 기능

예전에 당제를 모셨을 때 안도 사람들은 당제를 모시면 마을도 평안하고, 어장도 잘 되며, 각 가정도 평온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당제의 절차와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많은 경비가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모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안도 당제는 입도조라고 하는 정씨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물 정도의 많은 신격을 모시고 있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이다.

모셔지는 신의 수를 차리는 메밥의 수로 계산하면 무려 38위의 신을 모시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구축의 내용이나 마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신격은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이다.

제당의 구성으로 보더라도 윗당과 아랫당으로 나뉘고 있으며, 윗당은 정씨, 아랫당은 고씨가 맡고 있어 윗당을 할아버지, 아랫당을 할머니로 보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구성이 드러 날 수 있을 것이다.

전남 지방의 일반적인 당산제에서 보듯이, 윗당과 아랫당의 구조, 즉 당산 할아버지와 당산 할머니의 구조를 기층에 깔고 모셨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시는 신이 수적으로 대단히 많아서 매우 무질서한 것으로 보이기 쉽지만, 사실은 매우 구조적으로 정연한 틀을 가지고 있다. 바닥에 깔린 구조 위에 덧씌워진 형태의 드러난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신들의 질서를 잡는 길이다.

안도의 제당 구조는 동심원 구조를 지녔다. 즉, 윗당과 아랫당을 중심으로 하는 제당 영역과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영역, 그리고 바다까지를 포함한 그들 생활 영역 전체가 또 하나의 영역이다.

다시 말해 삼중의 층위적 구조를 가진 것이다. 윗당이 신의 영역으로서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고, 마을 단위의 우주가 또 하나 그 주위를 감싸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용제 때 모셔지는 중앙 용왕과 사해용왕의 신격들의 말해주듯, 마을 사람들이 나가 일을 하는 바다 전체가 하나의 신의 영역이 된다.

윗당의 신격 중 중심은 정씨 할아버지이며, 기능적 중심은 칠성신이다. 그러나 칠성당 앞에 놓인 중앙 지신의 예는 바로 신의 영역의 구조를 가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세 개의 동심원 가운데 하나는 중심에 위치한 윗당이고, 두 번째는 마을이 단위가 되며, 셋째는 생산을 하는 바다이다. 이러한 층위 속에서 중앙 지신은 윗당 중앙에 위치하여 우주의 중심점에 있어 동심원의 핵에 위치한 것이다.

중심 신역인 윗당 대문간에는 동문장과 서문장으로 불리는 수호신들이

위치하고 있다. 문이란 안과 밖을 연결하는 인위적인 장치이다. 그래서 중요하며, 또 약한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수호신이 위치하게 되면, 그곳은 항상 하나의 우주로 분류된다. 실제로 윗당은 가택신의 구성을 많이 닮고 있으며, 마을에도 이러한 수문장 역할을 담당한 신격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4목신이 그것이다. 마을의 약한 곳을 지킨다고 하는 4목신은 지역 수호신으로 마치 절의 4천왕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며, 윗당의 중앙 지신까지 합해 오방신장으로 보아야 한다.

용제에 나오는 중앙 용왕과 사해용왕의 구조 역시 오방신장의 연장선에서 나온 신격들이다. 그들이 풍어의 신으로 모셔지고 있지만, 이러한 오방신은 본래 지역 수호신의 기능에서 출발한 것이다.

기능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중앙의 동심원인 윗당에는 풍요를 가져다줄 것으로 믿어지는 칠성신이 있다. 마을을 동심원으로 하는 구조 속에서는 소지를 올리면서 하는 구축에 여실히 반영되어 있듯이 고선생께 풍요를 빌고 있다. 세 번째 가장 큰 동심원인 바다에 관련해서는 지역 수호신인 다섯 용왕이 기능의 복합으로 풍어의 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것이다.

대단히 복잡한 신격 구조로 나뉜 안도의 경우, 자칫 방만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매우 체계가 잡혀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종의 무의식적 지식의 완벽성을 문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접근해야만 이러한 구조적인 체계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동심원적 구조를 그리면서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의 기능적 신격을 빌린 예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바로 수호신적 역할을 하는 신격들의 삼중적 배치에서 가장 큰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마을의 역사이다. 1860년에 있었다는 ‘경신 대화재’는 마을 전체의 재앙으로써 마을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그러한 사실은 구전으로 전해질 것이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대화재를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고 이전의 초월적이며, 종교적인 의미로 그것을 해석한다. 마을을 지나던 스님이 마을에 불이 나지 않게 하려면 사목당에 각기 소금을 묻으라고 했다는 전설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준다.

불이 난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마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재앙인

것이다. 옛날 사람들이 병이 든 것을 역귀가 몸에 들어와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했던 맥락에서 이 마을의 대화재 역시 몹쓸 귀신의 장난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귀신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4목당을 섬기고, 또 그 밑에 소금을 묻는 주술적 방법까지도 사용했던 것이다. 이 마을의 밑에 깔린 신경 구조는 윗당과 아랫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대화재 전의 일일 것이다. 그러나 대화재를 경험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더욱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신경을 장치하는 것이 필요했다.

윗당의 동문장과 서문장, 그리고 마을의 4목신, 마을 멀리 바다에 사는 오방의 용신까지 동원하여 다시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번의 자물쇠를 잠그고 또 잠근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갯제’의 분화 현상이다. 대부분의 섬이나 바닷가 마을에서는 갯제에서 현식제와 풍어제의 성격을 공유하여 모신다. 안도에서는 갯제라는 말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역 수호를 위한 방위신적 기능을 가능한 한 두텁게 장치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 마을에서 발견된 ‘권선문’은 당제와 관련된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마을의 수호를 위해 당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안도에서 낡은 당집을 새로 짓기 위해 권선문을 지어 기부자를 모았다. 여기에는 일본인들까지 참여하여 마을의 수호를 간절히 바랐다.

권선문은 191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마을에는 1860년에 있었던 대화재를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한 바람이 그들의 의식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을 할 때 굳이 문서화까지 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더구나 기부자를 모으는 책의 이름으로 ‘권선문(勸善文)’이라는 말이 쓰였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이 당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신앙심을 가졌는지 가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여기서 ‘선(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윤리나 도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선미(眞善美)에서 ‘진(眞)’이 학문, ‘미(美)’가 예술의 뭉치라면 ‘선(善)’은 종교의 뭉치이다.

종교의 궁극적 목적을 선으로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이론적 바탕을 깔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식의 흐름은 얼마든지 무의식적 지식으로 갖추어져 있을 수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선을 종교의 궁극적 목표로 하는 무의식적인 지식이 발동하여 책의 이름을 ‘권선문’이라고 짓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줄다리기

안도는 섬이지만 2,000평 정도의 논이 있어 줄을 만드는 짚이 부족하지 않았다. 벼농사를 짓는 집에서 짚을 걷어다 암수 쌍줄을 만들었다.

웃모실(동쪽 마을)에서 솟줄을 만들고 아랫모실(서쪽 마을)에서 암줄을 노인들이 지휘하여 줄을 만들었다. 아랫모실줄은 주로 아랫당 위에 있는 ‘동재 밭’에서, 웃모실은 북쪽 바닷가인 ‘빠구미’에서 만들었으며, 서로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여성들이 줄을 넘어가는 것은 절대 금했다.

한편 이웃 마을에서도 줄의 제작에 참여했는데, 동고지와 상산동은 웃모실에, 서고지는 아랫모실에 합류했다. 동고지나 상산동에서 줄을 만들어 매구를 치고 오면, 웃모실에서도 역시 매구를 치며 환영을 나가 맞이해 오고, 그 마을에서 가져온 줄을 웃모실의 줄과 합쳐 ‘온줄’을 만들었다. 서고지와 아랫모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온줄을 제작하였다.

줄의 길이는 50m 이상으로, 예전에는 줄 위에 사람이 타고 앞사람들은 ‘땀대’를 메고, 뒤에서는 줄을 어깨에 메고 다녔다고 한다. 줄 위에 탄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탔다. 온줄에는 ‘결줄’을 달아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줄다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줄이 완성되면 줄을 메고 줄다리를 할 장소로 이동한다. 장소는 ‘빠금모실’이라고 불리는 곳의 보리밭이었다. 아랫모실줄은 윗당을 거쳐 내려오기 때문에 당산에 인사를 드리고 이동하고, 윗모실줄은 당산에 들리지 않고 바로 ‘빠금모실’로 옮겼다.

줄을 메고 갈 때는 줄 위에 소동을 태워 매구를 치고 함성을 지르며 돌아다녔다. “우리 줄은 이렇다. 너희 줄 내놔봐라.”고 위세를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어얼싸 덜이덜롱’하는 소리를 했다. 이렇게 줄메기가 성대하게 행해졌으나, 줄을 밀거나 부딪치는 놀이는 하지 않았다.

또한 줄을 결합할 때 고사를 지내지 않았으며, 교미시킨다고 하여 장난을 치거나

하는 놀이를 하지 않았다. 바로 비녀목을 찌르고 줄다리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고를 걸어 놓고 시작 신호로 징을 쳤다. 줄다리기가 시작되면 줄이 쪽 늘어나게 되는데, 그 때 바로 발 버틸 곳을 찾아 발을 대고 힘을 써야 한다고 한다. 줄다리기에서 이기려고 갖은 ‘장난’을 치기도 했다.

줄이 끌려가려고 하면, 여성들이 치마에 돌을 싸고 줄을 깔고 앉기도 하며, 줄 위에 앉아 버티고 있는 동안 이웃 마을이나 섬으로 ‘원군’을 청하러 가기도 했다. 배를 타고 금오도나 소리도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고, 소리도 등대에 있는 큰 벽구를 신고 와 치면서 행렬을 하고 응원을 했다고 한다.

아랫모실이 이겨야 풍년이 들고 좋다는 말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웃모실에서 일부러 쳐주는 일은 없었다.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서로 이기려고 노력했다. 줄다리기를 하는 장소가 보리밭이어서 줄다리기를 하고 나면 밭이 패이고 형편없이 되는데, 이상하게도 보리농사에 아무 지장 없이 보리가 잘 자랐기 때문에 주인도 불평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한편 어른들의 줄다리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어린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동·서로 나뉘어 줄을 만들어 메고 ‘어얼싸 털이덜롱’ 소리를 내며 다니다가 줄을 걸어 끄는데, 이렇게 줄을 끌다가 힘에 부치면 구경하고 있던 부인들이나 식구들이 합세하게 되어 줄이 커져 ‘골목줄’이 ‘중간줄’이 되고, 나중에 ‘큰 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웃모실은 웃모실대로, 아랫모실은 아랫모실대로 줄을 가져갔다. 이긴 편, 진 편의 줄의 쓰임새가 다르지 않고 줄을 잘라 퇴비로 사용하였다.

3) 매구

농악은 쟁과리·징·장구·북·소고·태평소 등의 악기 연주에 제의·놀이·군사·노동·음악·무용·연극적 공연 요소가

더해져 다양한 형태를 이루는 민속 연회이다. ‘풍장’, ‘풍물’, ‘매구’, ‘걸궁’, ‘걸립’ 등으로 일컫기도 하는데, 여수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매구’라고 불린다.

‘매구’는 땅에 묻혀 있는 잡귀를 밟고 위로하여 진정시킨다는 뜻의

‘매귀(埋鬼)’로 풀이되며, ‘굿’, ‘매굿’, ‘지신밟기’, ‘마당밟기’라고 부르기도 했다. 매구꾼은 기본적으로 팽과리·징·장구·북의 사물(四物)과 기(旗)대, 소고, 잡색, 나팔(새납을 포함) 등으로 편성되며, 그 조직은 대개 농기(農旗) 1명, 영기(令旗) 1명, 쇠 2명, 징 1명, 장구 2명, 북 2명, 소고 8명, 그리고 무동·중·각시·양반·대포수(또는 총잡이) 등의 잡색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농기, 영기, 새납, 사물을 일컬어 ‘앞치배’라 하며, 주로 연주를 맡는다. 소고(범고)와 잡색들을 ‘뒷치배’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대개 춤이나 극적인 놀이를 한다.²⁰⁾

안도마을에서는 매구꾼들을 ‘치매꾼’이라고 부른다. ‘치매’는 “매구를 친다.”라는 뜻이고, ‘치매꾼’은 매구를 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안도의 치매꾼은 쇠 2명, 징 1명, 장구 2명, 북 4명, 소고 6명, 잡색으로 대포수와 쫄쫄이 각각 1명과 같이 홀수로 구성되는데, 마당밟기 때는 상관없으나, 당산굿을 칠 때는 홀수를 엄격하게 지켰다고 한다.

치매꾼들은 모두 흰 한복에 흰색과 분홍색 고깔을 썼으며, 어깨와 배에는 삼색 띠를 둘렀는데, 왼쪽 어깨에는 홍색, 오른쪽 어깨는 황색, 배는 청색이었다. 잡색 가운데 대포수는 머리에 대장군(大將軍) 모자를 쓰고 총 대신 담뱃대를 들었다. 쫄쫄이의 역할은 매구패의 잔심부름을 하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할은 당산굿에서보다 마당밟기 때 주로 드러난다.

안도의 대보름 매구는 당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연행되어졌다. 당제가 음력 14일 당산제, 15일 헌식, 16일 용제가 행해지는데, 이날 각각 매구를 쳤다. 이런 일정을 고려해 정리하면 14일 오전의 샘굿을 포함해, ‘샘굿’ - ‘당산굿’ - ‘헌식굿’ - ‘용굿’의 순서이다.

안도의 매구는 같은 가락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비슷하게 친다. 각 곳에 따라 가락이 달라지거나 구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안도 매구의 쇠가락은 ‘0차’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차’는 징을 치는 수를 뜻하는데, 5차와 6차의 경우, 징을 5번과 6번을 쳐야 하지만 실제 가락에서는 아홉 번을 치고 있어 맞지 않고 있으며, 넘기는 가락도 각각 다르다.

또한 2차 가락의 변형이라고 부르는 가락은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거나 가락을 분석해 볼 때 ‘된삼채’로 볼 수 있다. 4차는 가락 이름이 아닌 ‘벽구놀이’다. 징을 뺀 장구와 북, 소고가 3차와 2차 등을 치면서 노는 놀이이다. 격렬한 몸짓, 춤과 함께 노는 놀이판으로, 쇠는 가락을 넘겨주거나 지휘할 때 끼어들 뿐 주로

20)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전통연희사전_농악 (<http://terms.naver.com>)

가죽 소리가 흥겹게 울리는 판이다. 따라서 다른 ‘차’가 독립된 가락 이름인데 반해 4차는 ‘채굿’ 개념이라 할 수 있다. 6차는 2분박과 3분박이 섞여 있는 혼합 박자이다. ‘질매구’라고 부른다.

마당밧기는 음력 정월대보름 오전에 이루어졌다. 전날 저녁부터 꼬박 날을 새우며 매구를 쳤음에도 집을 돌며 마당밧기를 하는데, 모든 집을 다 돌지는 않고, 대포수가 주인에게 의사를 물어봐서 환영하는 집에 들어가 매구를 쳤다. 집주인은 약간의 돈을 내놓았고, 매구꾼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다.

마당밧기 순서는 6차 질매구 - 문굿 - 마당굿(1차~5차) - 술굿 - 샘굿 - 조왕굿 - 성주굿 - 마당굿 - 질매구 순이다.

“주인 주인 문여소. 들어갈까 말까?” 노래를 부르며 문굿을 친 뒤 마당으로 들어가는데 이 때 ‘마당 입장굿’을 친다. 당산굿을 할 때 당집 대문에서 문굿을 치고 당집 마당으로 들어설 때도 이 가락을 쳤다.

마당굿을 마치면 술상이 나오는데, 이 때 술굿을 치고, 굿이 끝나면 술과 음식을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한다. 집에 있는 샘 앞에서 치는 샘굿을 칠 때 “물 주세 물 주세 샘의 각시 물 주세.”, “쿵쿵 솟아라. 쿵쿵 솟아라.”라는 구축을 한다.

조왕굿은 부엌에 있는 조왕에 들어가고 나올 때 치는 굿으로, “매구여”, “어이!” “잡귀잡신을 막아내고 명과 복을 쳐드리자.”라고 외친다.

매구꾼들이 조왕굿을 마치고 마당에서 매구를 치고 있을 때 대포수는 성주상 위의 물 잔을 들고 고사를 올리는데 이를 ‘성주 고사 올리기’라고 한다.

“가정이 만수무강하시고, 재수 좋고
잡귀잡신 쳐내고
명과 복을 쳐드리고
누림 오래 사시고
자식들 건강하고
가정에 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굿은 상쇠가 이끄는 다른 굿과 달리 대포수가 진행하는데, 고사가 끝나면 대포수는 이 물을 지붕에 뿌린다.

안도에서는 판굿을 특별한 굿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마당밧기를 할 때 광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크게 노는 것을 판굿이라고 한다. 내용이 달라지거나 커지지도 않으며, 1차부터 5차까지를 서너 번 반복해서 치는 것이다.

판굿의 큰 구조는 들당산 - 1차~5차 - 날당산으로, 들당산과 날당산은 당산 할아버지께 인사하는 것이며, 직접 당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판에서 친다. 따라서 '들당산'과 '날당산'은 그 상황에 대한 이름이며, 독립된 가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 동고지마을 당제

동고지마을에서 언제부터 당제를 지냈는지 정확한 연원은 알 수 없다. 다만 오래전에는 안도 5개의 자연 마을이 함께 당제를 모시다가 따로

분리하여 모셨다고 한다.

제장은 마을 뒷산에 당집이 있는데 마을에 혹시 굿은 일이 생기면 당주가 곤란을 겪기 때문에 따로 당집 아래에 집을 지어 제일 며칠 전에 올라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제를 준비하던 집이 있다. 신격은 당산할아버지이다.

안도마을과 같이 당제를 모시다가 분리하여 모셨기 때문에 당제를 모시는 절차는 안도와 비슷했지만, 안도처럼 많은 신격을 모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간소한 편이다.

정월 초에 마을에서 출산이 없거나 초상이 나지 않은 가정 중에서 깨끗한 사람을 당주로 선출한다. 당주로 선출되면 매일 목욕재계하고 출타를 금하며 언행에 조심하고 치성을 드렸다. 마을 사람들도 당주집에 출입을 삼갔다. 여수 시내로 나가 제물을 사오는데 종류는 과일과 명태, 산채 등이다. 제비는 마을의 공동자금으로 충당하였다.

제주는 제일 며칠 전에 당집으로 올라간다. 이때 마을사람들은 집에 불을 끄고 사람이나 짐승을 만나지 않도록 했다. 당집 아래 지은 집에서 지내면서 몸가짐을 삼가고 치성을 드린다. 음력 1월 15일 자시에 제를 올린다. 제의 절차는 안도와 비슷한데 제물을 진설하고, 향불을 피우고, 초헌, 아헌, 종헌 순서에 따라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한다. 소지를 하고나서 제가 끝나면 메를 땅에 묻는데 당집 뒤에 흙을 파서 묻고 돌로 그 위를 덮는다.

다음날 정월대보름 아침에 각 가정에서 제물 한 상씩을 차려서 보리마당에서

헌식을 한다. 제주가 큰 상에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하면 각 가정의 주부들도 자기상에 잔을 올리고 손비빔을 한다. 헌식이 끝나면 매구를 치면서 놀았다.

안도와 마찬가지로 줄다리기를 하고 놀았으나, 현재는 중단되었다.

5) 대부도 당제

대부도에서 정확히 언제부터 당제를 지냈는지 정확한 연원은 알 수 없다.

아주 오래전에는 안도의 다른 마을처럼 안도마을에서 같이 당제를 모시다가 분리하여 모셨다. 제장은 마을 뒷산에 당산이 있으며, 신격은 당산할아버지이다.

안도에서 분리하여 당제를 모셨기 때문에 당제를 지내는 절차는 다른 마을과 비슷하다.

정월 초에 집안에 출산이나 초상, 굿은일을 겪지 않은 사람 중에서 깨끗한 사람을 당주로 선출한다. 당주로 선출되면 제일 며칠 전부터 매일 목욕재계하고, 출타를 금하며 언행에 조심하는 등 금기를 지키고 치성을 드렸다. 마을 사람들도 당주집에 출입을 삼갔다.

제물은 여수 시장에 나가 사오는데 종류는 사과, 배, 꽃감 등의 과일과 생선, 산채 등이다. 제비는 마을의 공동자금으로 충당하였다. 당주는 제물을 갖추어 가지고 음력 정월 보름 자시에 당집으로 올라가서 제를 지낸다. 당주가 제장으로 갈 때 사람이나 동물을 만나면 다시 돌아와 목욕재계를 하고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은 집에 불을 끄고, 사람이나 짐승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조심했다. 제의 절차 역시 다른 지역과 비슷한데 제물을 진설하고, 향불을 피우고, 초헌, 아헌, 종헌 순서에 따라 재배한다. 축문을 읽고 소지한다. 제가 끝나면 메를 땅에 묻는데 당집 뒤에 파서 묻고 돌로 그 위를 덮는다.

정월 대보름 아침에 각 가정에서 제물 1상씩을 차려 나와 마을 앞 바닷가에서 헌식을 했다. 제주가 큰 상에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하면 각 가정의 주부들도 자기상에 잔을 올리고 손비빔을 한다. 헌식이 끝나면 매구를 치면서 놀았다. 지금은 인구감소 등으로 현재는 당제를 지내지 않는다.

6) 기독교

(1) 안도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의 교회이다. 1947년 여안초등학교 교장 부인이 처음으로 전도하였으며, 1950년 안도리 924-2번지에 안도교회가 설립되었다. 얼마 후에 안도리 900번지에 교회를 신축해 이전하였고, 1980년 안도리 899번지를 매입해 사택을 신축하였다. 1994년 5월 교회를 재건축하면서 함께 교육관을 신축하였다. 2024년 1월 1일 현재 고재석 목사가 시무 중이다.



안도교회

(2) 서고지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의 교회이다. 1990년 8월 당시 안도교회 전종대 목사를 모시고 안도리 1139-1번지에 설립예배를 드리고, 같은 해 11월에 3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였다. 2006년 4월 안도리 1227번지에 2층 65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2024년 1월 1일 현재 김재욱 목사가 시무 중이다.



서고지교회